

2주차 장보기 비용 ‘28만4141원 → 30만3739원’ ‘근심’만 가득 채운 장바구니

태풍이 덮친 밥상 물가

15년 차 주부 김모 씨는 요즘 장보기가 겁난다. 가격이 오르면 상대적으로 가격이 덜 오른 대체식품을 구입하며 나름 20년간 알뜰하게 살아온 그도 최근의 물가 상승에는 뽀족한 수가 없다. 상추, 시금치 가격이 올랐지만 이를 대체할 만한 채소 가격도 ‘금값’이긴 마찬가지다. 초등학교인 둘째 아이가 온라인 수업을 하고 남편까지 격주로 재택근무를 하면서 김 씨의 장 보기는 씁쓸이도 커졌다. 집밥을 먹는 가족이 늘었으니 장바구니 부담이 늘어날 거라 예상했지만 치솟는 물가는 늘 상상 이상이다.

코로나19로 집밥이 늘면서 주부들의 장바구니 부담이 커졌다. 학교 급식, 구내식당을 각각 이용하던 아이와 남편이 온라인 수업, 재택근무로 집에 머물면서 한 번 장보는 비용이 크게 늘었다. 지난해만 해도 20만 원 초반이면 열흘에서 2주간 먹거리를 충분히 구입할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같은 기간 비용이 50%가량 늘었다.

상대적으로 외식을 덜하는 대신 집에 오래 머무는 자녀들을 위해 피자, 치킨 등 배달 음식을 주문하는 횟수가 늘어난 것도 부담이다.

6일 이투데이가 소비자원 참가격, 온라인몰, 농수산물 유통정보 등을 분석해 두 달 전과 현재의 장바구니 물가를 비교한 결과 2주차 장보기 금액이 6.9%나 늘었다. 두 달 전인 7월 초 4인 가족 기준 2주차 장보기 비용은 28만4141원이었으나 9월 첫주에는 30만3739원이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8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5.5로, 전년 동기 대비 0.7% 상승했다. 월별 비교지수인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3월 이후 5개월 만에 최대 수준인 0.7% 올랐다. 특히 장마와 태풍이 장기화하며 농축산물 가격이 폭등했다.

4인 가족 가계부

(단위 : 원, 2주간 장보기 가정) ※소매가격 기준

품목	7월 첫째주	9월 첫째주	증감률
계란(20알)	3,410	3,626	6.33%
호박(2개)	2,454	4,820	96.41%
두부(2모, 풀무원 국산)	6,642	8,388	26.29%
콩두부 (피개용)			
양파(1개)	8,148	8,000	-1.82%
우유(1리터 2팩)	5,134	5,134	0.00%
감자(800g)	2,536	2,760	8.12%
대파(1단)	2,850	3,746	31.44%
당근(무세척, 330g)	1,245	1,414	13.57%
상추(청)200g	2,314	3,418	47.71%
시금치(330g)	2,720	5,563	104.52%
삼겹살(국산냉장, 900g)	24,642	24,804	0.66%

품목	7월 첫째주	9월 첫째주	증감률
미국산갈비살(800g)	27,144	25,824	-4.86%
한우 등심 1+(800g)	104,000	108,248	4.08%
사과(10개)	24,035	26,186	8.95%
배(5개)	16,967	18,568	9.44%
바나나(1송이)	2,980	2,900	-2.68%
맛있는 오뚜기 즉석밥(12개입)	8,520	9,240	8.45%
롯데제과 나뚜루 파인트(1개)	10,500	11,600	10.48%
대상 총가집 포기김치(3.3g)	27,900	29,500	5.73%
합계	28만 4141원	30만 3739원	6.9%

※출처 : 농산물유통정보, 소비자청가격, 이마트몰

원격수업·재택 확산에 ‘집밥’ 늘어
2개월 새 ‘식탁 물가’ 6.9% 증가

채소 28.7% 올라 고깃값 넘바
가공식품 줄인상에 부담 가중

농축수산물물은 전년 동기 대비 10.6%나 뛰었다. 태풍의 직격탄을 맞은 채소류는 28.7%나 오르며 육류 가격을 넘볼 정도다.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 육류와 고등어 등 수산물 가격도 전년 동기 대비 두 자릿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주부가 체감하는 가격 인상폭은 정부 통계보다 심각하다. 이투데이가 분석한 장바구니 물가에서 양파, 우유, 미국산 쇠고기, 바나나를 제외한 전 품목의 가격이 올랐다. 시금치는 가격이 2배 이상 올라 330g 기준 5500원을 넘어섰고 애호박도 2배에 육박하는 수준인 개당 1227원에 판매되고 있다.

대파 한 단에 3700원대, 상추 200g이 3400원대까지 올랐다. 지난해 ASF(아프리카 돼지열병) 사태로 최저 수준으로 가격이 하락했던 삼겹살도 올 들어 지속적인 오름세를 보이며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추석을 앞두고 한우 가격도 오름세다. 한우 가격은 등심 기준 9%가량 인상됐지만 추석 직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는 품목이어서 추가적인 가격 인상이 이어질 전망이다.

여기에 가공식품 제조사들마저 원재료비 부담을 이유로 가격을 인상하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은 더 커졌다. 오뚜기는 최근 즉석밥 3종 가격을 평균 8% 인상했고 롯데제과 목캔디와 찰떡파이 가격을 평균 10.8% 올렸다. 김치 제조사들도 올 들어 배추 가격이 폭등하자 5월 전격적으로 가격을 인상했다. 김치의 경우 배추와 무 등 주요 재료의 가격 상승으로 가격이 인상된 포기김치가 오히려 저렴한 기현상이 일고 있다.

유현희 기자 yhh1209@·김혜지 기자 heyji@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1주일 연장

빵집·빙수 가게도 매장 내 취식 금지 한숨 깊어지는 자영업자

주류 반입 줄여 지출 최소화
배달 증가로 수수료 부담 커져
“200만원 지원금 큰 도움 안돼”

“배달업체만 배불리게 생겼네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일주일 연장 조치로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방역 지침을 보완해 7일부터 프랜차이즈 빵집, 아이스크림 전문점 등도 매장 내 취식 금지대상에 포함했다. 반쪽 영업으로 수익 악화 대상이 된 자영업자가 늘어나게 된 것이다.

정부는 4차 추경 편성을 통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지원에 나선다는 입장이지만,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매출 감소가 이어진 자영업자들의 갈증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배달비중이 늘면서 배달수수료가 커진 것도 자영업자의 부담을 가중하는 요인이다.

6일 외식업계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으로 자영업자들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심야영업을 하는 업종과 추가적으로 매장 내 부 취식이 금지되는 베이커리, 아이스크림, 빙수점 등의 부담이 크다.

서울 강서구에서 저녁 7시부터 새벽 5시까지 심야식당을 운영하는 A 씨는 거리두기 2.5단계로 사실상 장사를 접은 상태다. A 씨는 “(장사가) 끝났다고 보면 된다”며 “거리두기 2.5단계 시행 후 런치(점심 장사) 메뉴를 도입했지만 매장을 찾는 이는 거의 없다”며 늘어난 임대료와 인건비가 큰

부담이라고 하소연했다.

베이커리 업계는 배달로 활로를 찾는다라는 방침이다. 베이커리 업계 관계자는 “배달 서비스, 구독 서비스 등으로 매출 감소를 막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프랜차이즈가 아닌 개인 커피 전문점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서울시 동작구에서 10평 남짓한 카페를 운영하는 C 씨는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면 매출이 절반으로 줄었고, 지난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실시 영향으로 또 10%가량 매출이 빠졌다”며 “문화센터가 폐쇄되고 재택근무가 늘어 거리에 손님이 줄어든 탓”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식당에서는 고정비를 줄이기 위해 주류 반입량까지 줄이고 있다. 주류의 경우 도매상과 식당 거래 시 여전히 현금 거래가 주를 이룬다. 외상거래가 가능하지만 매출이 축소된 가운데 주류 반입량을 유지하기 부담스러워했다.

배달 증가로 인한 수수료 부담이 커진 것도 자영업자들의 부담이다. 배달 대행업체는 웃돈을 주고 불러야 할 만큼 늘어난 수요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다. 홀매출이 줄고 배달매출 비중이 늘어날수록 자영업자가 부담할 수수료가 늘어나는 구조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은 최대 200만 원의 지원금만으로는 약화한 자영업자들의 수익성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김혜지 기자 heyji@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 행복파트너 농지은행

농업인의 행복에 지지 않는 별이 되겠습니다

농지은행은 농지관련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터넷(www.fbo.or.kr)과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농지매매·임대차·공공임대용 농지 매입

- 매매, 임대를 통한 영농규모확대 지원
- 고령은퇴, 이농 농업인의 농지를 매입하여 임대

청년창업농, 2030세대, 귀농인 농지지원

- 청년창업농의 안정적 영농정착을 위해 우선 지원
- 생애 첫 농지구입자금 저리 지원, 5~10년 장기임대



농지연금사업

- 만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의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처럼 생활안정자금을 지급(중도인출 가능)



농지임대수탁사업

- 자경이 어려운 농지소유자의 농지를 위탁받아 농업인에게 5년 이상 장기임대



경영희생지원 농지매입사업

- 자연재해, 부채 등 경영위기 농가의 농지매입 후 최대 10년간 임대 및 환매 보장 등 경영 정상화 지원



독특한 농지관리 전문가 농지은행 | 든든한 노후생활 도우미 농지연금

홈페이지

www.fbo.or.kr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고·자영업자·소상공인에 최대 200만원 ‘핀셋 지원’

2차 재난지원금, 코로나19 피해 큰 계층·업종 선별 지급
유흥주점·PC방 등 ‘집합금지’ 12개 업종 100만원 안팎
7세 미만 ‘아동돌봄쿠폰’ 초등생 가구에 확대 지급 검토

당정이 7조 원 중반대의 4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큰 피해를 입은 계층과 업종을 긴급 지원한다. 정확한 지원 금액과 대상은 향후 국무회의나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결정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관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청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실업자 등 고용취약계층,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 코로나19 피해가 큰 계층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코로나19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고통을 겪는 국민을 돕기 위한 것”이라며 “더 어려운 국민을 먼저 돕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명령을 받은 12개 업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고, 청년에 특단의 민생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현금뿐 아니라 금융까지 포함한 패키지 지원으로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4차 추경 규모에 대해 7조 원 중반대라고 뭉뚱그려 발표했을 뿐 구체적 지급대상과 규모는 확정하지 않았다.

다만 4차 추경안에 특고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매출 감소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 지원, 저소득층 긴급 생계비 지원 등을 담기로 했다.

최대 200만 원으로 예상되는 2차 지원금을 받는 고용 취약계층은 학습지 교사,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회의실에서 고위당정협의회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학원 강사, 스포츠 강사, 방문판매원, 학원 버스 운전기사, 간병인 등 특고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노

동자다. 대부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들이다. 무급 휴직자·실직자,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도 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우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집합금지 12개 고위험시설 업종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12개 고위험시설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PC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이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영업을 금지한 만큼 손실의 일정 부분을 보상해주는 성격이다. 1곳당 100만 원 안팎의 휴업 보상을 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소상공인에게 매출 급감 정도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다. 최근 신용카드 매출 감소 폭에 따라 등급을 정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4일 “매출 기준을 기본 지표로 보고 있다”며 “매출은 소득보다 훨씬 더 파악이 쉽고 적시성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겐 현금 지원과 함께 금융·세제 지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임대료 지원이나 전기·통신요금, 세금 납부유예 조치를 연장하는 등의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온라인 수업으로 돌봄 부담이 커진 학부모들을 위해 돌봄쿠폰을 초·중·고생 260만여 명에게 모두 주거나 저학년 위주로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7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했던 40만 원 상당의 ‘아동돌봄쿠폰’은 지자체별 여건에 맞게 전자상품권(돌봄포인트), 지역전자화폐(모바일 또는 카드방식), 종이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등) 형태로 지급되고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쇼핑몰, 대형전자판매점, 클린카드 적용업종(정부구매키드 요건)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전액 적자국채 발행 땀 나랏빚 850兆… 재정건전성 ‘빨간불’

당정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피해가 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자영업자·소상공인에 최대 200만 원 안팎의 현금과 금융을 포함한 패키지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7조 원 중반대 적자국채를 발행,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국가채무가 850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여 재정건전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

6일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청와대는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기로 했다. 재정 상황을 고려해 4차 추경 규모는 7조 원 중

3차례 추경으로 적자국채 36.7兆… 국가채무비율 사상 최고
폐지 가능성 없는 조세지출 31兆 육박, 국세감면액 50% 이상

반대로 잡고 있다. 지원금 수준은 1차 지원금 당시 상한액(4인 이상 가족 기준 100만 원)의 2배인 200만 원 안팎까지 늘어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4차 추경에 나서면 1961년 이후 59년 만이다. 3월 대구·경북 지원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1조7000억 원 규모의 첫 추경을 편성했고 4월에는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의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12조2000억 원 규

모의 2차 추경을 했다. 7월에는 역대 최대인 35조1000억 원 규모의 3차 추경을 편성했다.

정부는 이미 세 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허리를 잔뜩 졸라매고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이에 4차 추경은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4차 추경 재원을 전액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할 경우 재정건전성 훼손 우려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올해 59조 원에 이르는 세 차례의 추경 중 적자국채는 36조7000억 원을 발행해 총당했다. 나머지 22조4000억 원은 올해 예산 중 지출구조조정 예산액과 기금의 여유재원을 총동원해 충당했다.

3차 추경 후 국가채무는 839조4000억 원으로 치솟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사상 최고치인 43.5%로 올라갔다.

4차 추경을 위해 7조 원 중반대의 적자국채를 추가로 발행한다면 국가채무는 846조 원을 훌쩍 넘어 850조 원에 육박하게 된다. 국가채무비율 역시 43.8%

로 상승해 44%를 코앞에 두게 될 전망이다.

여기에 폐지 가능성이 없는 조세 지출 규모는 올해 30조3476억 원에 이어 내년에는 30조7490억 원으로 31조 원에 육박한다.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1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정부는 올해와 내년 국세감면액을 각각 53조8905억 원, 56조8277억 원으로 전망했다. 전체 국세감면액에서 정비가 어려운 조세지출 비중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다.

폐지 가능성이 없는 조세 지출이 늘어난다면 정부의 효율적 조세감면 제도 정비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는 결국 세입 기반 약화, 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진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일자리안정자금

코로나19

일자리안정자금 추가지원금

못 받은 사장님들

10월 5일(월)까지 꼭 신청하세요

※ 신청 기한이 지난 경우, 코로나19에 따른 추가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원 요건 충족 시 기존 일자리 안정자금은 지원됨)

지원 대상

코로나19 추가 지원금은 현재 재직 중이고, 2020년 2월~5월 중 근무한 근로자가 대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요건에 해당함에도 미신청한 근로자가 있을 경우 신청

신청 방법

2020. 10. 5.(월)까지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http://total.kcommwel.or.kr>)를 통해 신청

※ 기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사업장의 2020년 2월~5월 근무한 근로자는 2020년 3월~6월에 코로나19 추가 지원금 기피금분

※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 1588-0075로 문의 또는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 공지사항시행일 안내 참조

진료복귀 반갑지만…‘공공의료 확충’ 지역격차 어쩌나

진료거부 집단행동을 이어오던 전공 의들이 병원에 복귀하기로 결정하면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을 둘러싼 의·정 갈등은 일단락됐지만, 의료 격차 해소는 속제로 남았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4일 합의에 따라 향후 의·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의체에서 지역의료 지원책 개발,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 의료정책 전반을 논의할 계획이다. 의대 정원 확대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공공의대) 설립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현실적으로 지역 의사 확충과 비인기

의정 협의체, 정책 전반 논의 공공의대 설립 원점 재검토

“의사 늘려야 의료격차 해소”

의협 ‘수가 인상’ 고수할 듯

과 전문의 육성은 단기간 내 어렵게 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4월 기준으로 의대 졸업 후 해당 시도 근무비율은 경북이 10.1%, 강원은 13.8%, 충남은 16.6%에 불과하다. 의사들의 지방 기피로 지난해 기준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는 강원

1.8명, 경북은 1.4명으로 서울(3.1명)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 강원 영월군의 경우, 뇌졸중 등 뇌질환 사망률이 서울 동남권의 2배를 웃돈다. 진료과목 편중도 심하다. 지난해 전문의 약 10만 명 중 갑염내과 전문의는 277명, 소아외과 전문의는 48명에 불과했다.

정부와 의협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정책을 검토하기로 했으나, 의협이 의사 확충을 받아들이기 가능성은 작다. 기존 요구대로 ‘의료수가 인상’ 카드를 내놓을 공산이 크다.

다만 수가제도 개선만으론 지역·과목 간 격차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

온다. 이상이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역에서 필요한 건 ‘오래 머물’의 사인데, 수가만 올리면 상당수가 2~3년만 머물다 돈 벌어 서울로 올라갈 것”이라며 “의사만 늘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의사를 늘리지 않으면서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없다”고 꼬집었다.

이익단체 중 한 곳인 의협이 논의를 주도하는 구조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온다. 대한간호사협회는 논평에서 “의협·병원협회 등 6개 공급단체 8명과 8개 근로자·시민단체 등 대표 25명으로 구성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의사단체의 영향력 아래 두려는 의도로 논의하는 것

이라면 거센 반발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수가 결정은 국민이 낸 보험료를 의사 등 의료서비스 공급자에게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으로 건정심의 결정 사항”이라며 “이 위원회의 한 구성원인 의협이 자신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가격을 얼마로 할지 정부와 협의해 제시하겠다는 발상이 과연 의협이 그렇게 강조하던 절차의 공정성에 부합하는지, 이러한 억지에 합의한 복지부는 제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iye@



탕빈 제과점 정부가 6일 종료 예정이었던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13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연장 조치에 맞춰 7일 0시부터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에 이어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아이스크림·빙수점도 포장과 배달만 허용한다. 6일 서울 시내의 한 프랜차이즈형 제과점 내 테이블이 텅 비어 있다. 고이관 기자 photoeran@

대기업 4곳 중 1곳 “하반기 신규채용 없다”

“코로나 따른 경기 악화로 채용 안해… 기업규제 완화 필요”

한경연 500대 기업 조사

올해 하반기 대기업 4곳 중 3곳은 아직 신규채용 계획을 확정하지 못했거나 한 명도 뽑지 않을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2020년 하반기 신규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 대기업의 74.2%는 올해 하반기 신규채용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거나, 한 명도 채용하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이 중 신규채용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기업은 50%, 채용을 안 하기로 정한 기업은 24.2%였다.

한경연 관계자는 “지난 2월에 실시한 상반기 신규채용조사에서 채용계획 미수립 기업 32.5%, 신규채용 ‘0’인 기업 8.8%였음을 고려하면 올해 하반기 신규채용 시장은 상반기보다도 더욱 악화할 전망이다”라고 우려했다.

올해 하반기 신규채용 계획을 수립한 대기업 비중은 25.8%로 이마저도 채용 규모가 작년보다 감소하거나 비슷한 기업이 대부분(77.4%)이었다. 전년보다 채용을 늘리겠다는 기업은 22.6%였다.

신규채용을 늘리지 않는 이유에 대해 대기업 10곳 중 7곳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국내외 경제 및 업종 경기 악화’라고 답했다. △유휴인력 증가, TO 부채 등 회사

내부 수요 부족(7.5%)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인건비 부담 증가(5.7%) △정규직 인력 구조조정의 어려움(5.7%) 등도 있었다.

대졸 신규채용을 늘리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노동, 산업 분야 등 기업규제 완화(29.0%) △고용증가 기업 인센티브 확대(28.6%) 등이 꼽혔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청년 고용시장은 기업들의 경영실적 악화에 따른 고용 여력 위축과 고용 경직성으로 인한 신규채용 유인 부족이 겹치면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며 “산업 활력 제고와 고용유연성 확보에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청년들의 실업난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ברי 기자 kimstar1215@

동남아·중남미 등 신흥시장에서는 부품 조달, 제품생산, 판매·유통을 현지에서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자체 완결형 공급망이 조성되고 있다. 또 자동차, 전기·전자 기업을 중심으로 중국 생산라인을 아세안·중남미 등지로 옮기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IT·S/W’(43%), ‘자동차부품’(34%) 분야 글로벌 기업들은 한국 기업과의 첨단기술 협력에 관심이 컸다.

코트라는 △GVC 재편에 따른 선제적 조치를 통한 해외 진출 강화 △글로벌 기업과의 연구개발 협업 △우리 기업의 가치사슬 생태계 강화 등 세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재생에너지 참여 발전소 인근 주민 정부, 자금 90%까지 장기저리 융자

국민주주 지원 사업 개시

정부가 태양광·풍력 발전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발전소 인근 주민들은 투자금의 최대 90%를 장기저리로 융자해 주는 ‘재생에너지 국민주주프로젝트’ 지원을 개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국민주주프로젝트 사업(국민주주 지원 사업)을 공고하고 융자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국민주주 지원 사업은 태양광(500kW 이상)·풍력(3MW 이상) 주변 읍·면·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주민이나, 주민으로 구성된 마을기업(5인 이상)이 발전사업에 참여를 희망할 경우 투자금(총사업비의 4% 이내)의 최대 90%까지 장기저리로 융자를 지원한다. 올해 추경을 통해 총 365억 원의 예산이 반영됐다.

이 사업은 산업부가 지역 주민들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2017년부터 운영해온 재생에너지 주민참여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새롭게 마련된 제도다.

주민참여제도는 주민 참여금액이 ‘자기 자본의 10% 및 총사업비의 2% 이상’인 경우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REC) 0.1, ‘자기자본의 20% 및 총사업비의 4% 이상’

인 경우 REC 0.2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주민참여제도 도입 후 총 22개(128MW) 사업이 참여형으로 준공됐고, 공공부문 발전사업자가 추진 중인 184개(24.2GW) 사업 중 71개(13.7GW·용량 기준 약 57%)가 주민참여형으로 계획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사업참여에 필요한 높은 초기 소요자금 부담이 제도 확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공공부문 발전사업자가 추진하는 태양광·풍력 사업당 평균 사업비는 약 4940억원으로 지역 주민의 사업참여(추가 REC 발급)를 위해선 약 100억~200억 원이 필요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민주주 지원 사업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수익을 발전사업자가 독점하지 않고 지역 주민들과 공유함으로써 향후 재생에너지 수용성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업 신청은 참여 주민의 주민등록 초본과 주민·발전사업자간 참여(투자) 협약서 등을 갖춰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에서 하면 된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산업부 “7년간 유턴기업 80곳에 불과”

“대부분 中 진출 중소기업 업종별 차등화 정책 필요”

2013년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이 시행된 이후 유턴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80곳에 불과해 유턴 정책이 성과를 거두려면 업종별 차등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6일 ‘우리나라 유턴 기업의 실태와 개선 방향’ 보고서를 통해 “유턴법의 전체적인 성과는 미흡하다”며 “지난해부터 유턴 기업이 증가하고 있지만, 추세적으로 늘어날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유턴 기업은 전기·전자, 주얼리, 자동차 등 업종에서 중국에 진출한 중소기업들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유턴 기업의 총투자 규모는 1조1103억 원, 총고용은 2967명으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유턴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추세적 확장성과 유턴 기업의 사업 지속성

은 아직까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분석했다.

다만 최근 2년간 중견기업의 유턴이 증가하는 현상(9개)은 긍정적인 것으로, 자동차업종에서 핵심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대기업(현대모비스)의 유턴이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지속해서 검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유턴 정책이 성공하려면 보편적 정책에서 업종별 차등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소재·부품·장비나 의약·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경제 파급효과가 크고 향후 성장 가능성이 큰 고위기술산업, 의료산업과 같은 전략상 핵심산업을 선정해 해외사업장의 청산·축소·폐지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유턴과 국내 경제정책은 상호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국가 핵심전략 산업 △지역별 특화 산업 △핵심산업의 국내 공급망 구축과 연관된 부분의 해당 전략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유턴 정책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

수십년 지속 ‘글로벌 분업구조’ 빠르게 재편

코트라, 글로벌기업 246곳 조사

글로벌 기업 64%가 사업장 이전 등 가치사슬 재편을 최근 완료했거나 계획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 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아세안(ASEAN) 등 신흥시장이 성장하면서 수십 년간 세계교역을 이끈 글로벌 분업구조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것이다.

대한 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KOTRA)는 6일 세계 49개 해외무역관 등을 통해 글로벌 기업 246개사를 대상으

로 소재·부품·장비 분야 사업장 이전, 조달처 변경 등 글로벌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GVC) 재편 실태를 조사·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밝혔다.

가치사슬 재편이 활발한 지역은 중국(45%), 북미(35%), 중남미(35%) 순이며, 활동은 기업 간 투자·인수합병이 가장 비중이 컸다. 배경으로는 ‘보호 무역주의 심화(27%)’, ‘기술 고부가가치화(26%)’, ‘신흥국 소비시장 활용(26%)’ 등을 주로 꼽았다.

〈어차피 회장은 윤종규〉

‘관례’보다 ‘성과’…‘어회운’ 굳힌 KB, 허인 연임 주목

금융권 수장 인사시즌 개막

금융권 수장 상당수가 이달부터 내년 4월까지 물갈이되는 ‘인사태풍’에 휘말릴 전망이다. 금융권 인사는 내부적 요인뿐만 아니라, 정부와 정치권에서의 인사 구도와도 맞물리기 때문에 업계 안팎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간 국내 금융지주 계열사 최고경영자(CEO) 임기는 ‘관례’가 유독 강조됐다. 금융산업 특유의 ‘연공서열’ 중심 문화가 CEO 임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경영능력이 검증된 CEO의 경우 관례를 깨고 연임되는 사례가 나왔다. 때문에 가장 먼저 인사 절차를 시작하는 KB금융지주의 인사가 주목된다.

◇사모펀드 사태 비켜간 KB금융 인사= 주요 금융지주 가운데 CEO 인사 절차가 진행 중인 곳은 KB금융지주다. 윤종규 회장은 이달 세 번째 임기에 도전하는데 회사 안팎에서는 3연임 가능성을 높게 본다. 특히 올 2분기 경영 실적이 개선되며 5대 금융지주(KB·신한·우리·하나·농협) 중 가장 많은 당기순이익을 기록해 ‘리딩뱅크’ 위치를 탈환한 게 호재다. 무엇보다 경영진 간 다툼인 ‘KB사태’ 직후인 2014년 회장 겸 국민은행장에 오른 후 조직을 안정적으로 추스르고 인수합병(M&A)을 잇따라 성공시켰다. 현대증권(KB증권)·LIG손해보험(KB손보), 푸르덴셜생명 인수까지 이끌었다. 내부에서조차 ‘어회운’(어차피 회장은 윤종규)이란 말이 회자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분석 때문이다.

때문에 다음인 허인 국민은행장을 비롯해 그룹의 후계구도에 관심이 더 집중되고 있다. 금융지주 회장 선임이 확정되면 곧바로 다음 국민은행장을 선임하는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허 행장은 2017년 이후 국민은행 경영을 맡았고 지난해 1년 연임을 보장받았다. 다른 시중은행이 사모펀드 사태로 곤욕을 치를 때 국민은행만 유일하게 고객 피해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허 행장의 법조계 인맥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변수다. 금융권에서 보

금융권 CEO 임기만료		시중은행장	
금융지주 회장	윤종규 KB금융 회장 (2020년 11월)	허인 KB국민은행장	2020년 11월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2021년 3월)	진옥동 신한은행장	2020년 12월
	김광수 NH농협금융 회장 (2021년 4월)	지성규 하나은행장	2021년 3월
	김태오 DGB금융 회장 (2021년 3월)	권광석 우리은행장	2021년 3월
금융공기업		금융협회장	
	이동걸 KDB산업은행장	2020년 9월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	2020년 11월	
	정완규 한국증권금융 사장	2021년 3월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	2020년 11월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2020년 11월	
	신동걸 생명보험협회장	2020년 12월	

기드문 서울대 법대 학사이자 노조위원장 출신인 허 행장은 대검 고위간부 출신 등을 비롯해 법조계 인사들과 두터운 인맥을 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B금융 내부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는 “최근 몇 년 사이 감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들의 인사 이동 폭이 워낙 크고, 행장 선임 시기와 사정이 많이 달라져 여러 가지 변수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KB금융 내부적으로는 경영의 연속성과 성과를 놓고 판단했을 때 허 행장의 연임이 유리해 보인다. 허 행장 임기 동안 순이익 1위를 탈환했고, 약점으로 지적되던 해외사업에서도 눈에 띄는 성과를 냈다. 지난해부터 금융권을 휩쓴 각종 부실 사모펀드 사태에서도 KB국민은행은 자유롭다.

◇내년 초까지 ‘인사태풍’ 예고 = 다음달 10일 임기를 마치는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도 연임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9월 취임한 이 회장은 3년간 금호타이어와 한국GM, STX 조선해양 등의 구조조정을 원만하게 마무리했다. 또 아시아나항공 매각, 두산그룹 구조조정 등 산은이 채권단으로서 해결해야 할 골치 아픈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어 ‘해결사’ 이미지가 강한 이 회장이 3년 더 자리를 맡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광수 NH농협금융 회장도 내년 4월 말 연임 임기를 마친다. 농협금융 회장은 3연임한 전례가 없다.

시중은행장 중에는 진옥동 신한은행장의 임기가 12월에 끝난다. 진 행장은 현재 2년간의 첫 임기를 보내고 있다. 지성규 하나은행장과 권광석 우리은행장의 임기

사모펀드 사태 ‘CEO 책임론’ 부상 속 ‘리딩뱅크 탈환’ 윤종규 3연임 유력 ‘순위 1위’ 허인 행장은 인맥이 변수 ‘구조조정 해결사’ 이동걸 연임 낙관

는 내년 3월까지다. 진 행장과 지 행장, 권 행장은 모두 연임 가능성이 있는데 사모펀드 환매 중단 등 최근 터진 사고에 대한 책임 여부가 향후 쟁점이 될 수 있다.

박진회 한국씨티은행장이 10월 임기를 마치고, 박종복 SC제일은행장도 내년 1

월 세 번째 임기가 시작되는 등 외국계 은행들도 CEO 인사를 앞두고 있다. 이 밖에 윤호영 카카오펙 대표도 내년 1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지방은행의 경우도 대부분 내년 초 임기 종료에 맞는다. 반대인 부산은행장, 황윤철 경남은행장, 임용택 전북은행장, 송중욱 광주은행장, 서현주 제주은행장이 모두 내년 3월까지가 임기다.

금융공기업 인사도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과 정완규 한국증권금융 사장의 임기 만료는 각각 11월과 내년 3월이다. 차기 거래소 이사

장으로 4월 총선 때 낙선한 전직 여당의 원이나 현재 경제관료가 올 것이라는 설이 돌고 있다. 통상적으로 차관급 관료 출신이 한국거래소 이사장으로 부임한 사례가 많아 손병두 부위원장이나 정완규 사장이 유력하다는 예측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만큼 CEO 교체로 조직에 무리한 변화를 주기보다는 안정적 경영 상황을 이어가야 한다는 분위기”라며 “일부 회사의 경우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책임론에서 자유롭긴 어려울 전망”이라고 말했다. 서지연 기자 sjy@나경연 기자 contest@

살 때 팔 때 투자 타이밍이 더

유안타. 티레이더

인공지능 티레이더가 주식부터 펀드까지 투자 타이밍을 알려준다

선생님 투자하는 방법?

허 회장이 바만 알면 쉽다

유안타증권 元大證券

티레이더 www.tRadar.co.kr | 고객센터 1588-2600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금융투자상품의 투자대상, 판매방법, 수수료 및 보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반드시 충분한 설명을 듣고 가입하시기 전에 반드시 (간이)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은용결제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당사 온라인 주식매수수수료는 0.066% 등이며 (해외주식 수수료는 출금 0.3%, 상해A 0.3%) 기타수수료 및 예매제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티레이더, 티레이더펀드 서비스는 투자자의 투자편안을 돕기 위한 보조 서비스로 수익발성을 반드시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99-62호(2019.02.28)

쇄신이나 코로나궤 경영악화 안정이나 보험·카드사 수장 30여명 임기만료

허정수·정문국 등 거취에 관심

올 연말 30여 곳의 보험·카드사 수장들의 임기가 대거 만료되면서 대규모 인사 변동이 이뤄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올 연말과 내년 1분기를 기점으로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허정수 KB생명보험 대표, 정문국 오렌지라이프 대표, 홍재는 NH농협생명 사장, 성대규 신한생명 사장 등의 임기는 12월까지다. 하만덕 미래에셋생명 부회장과 변재상 미래에셋생명 사장, 조병익 흥국생명 대표 등도 내년 3월이면 임기가 끝난다.

특히 생명보험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영실적에 타격을 입었다. 생보사는 코로나19 여파로 국내의 증시가 크게 하락하면서 투자수익률이 낮아져 보증준비금 전입액이 늘었다. CEO의 연임에는 실적 지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에 임기 만료를 앞둔 생명보험사 수장들의 거취가 주목받고 있다.

허 대표는 지난해 1년 연임해 성공했다. KB금융은 계열사 CEO의 임기를 첫 임기

년에 1년을 연임하는 ‘2+1’ 제도를 따르고 있다. 이런 점에서 허 대표는 사실상 임기를 끝낸 후라 이번 연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다만 같은 계열사인 양종희 KB손보 사장은 3연임에 성공했다.

정 대표와 성 사장은 임기가 동시에 끝난다. 특히 신한금융지주가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의 통합합법을 공식화하면서 두 사람이 통합보험사의 수장을 놓고 경쟁을 벌일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홍재는 사장은 앞서 지난해 1월 취임 후 같은 해 12월 연임에 성공했다. 농협금융 계열사는 CEO 임기의 경우 ‘1+1’ 룰을 따르고 있다.

카드업계도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임영진 신한카드 사장, 이동철 KB국민카드 사장, 정원재 우리카드 사장, 이동면 비씨카드 사장이 12월 임기가 만료된다.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과 장경훈 하나카드 사장은 내년 3월 각각 임기가 만료된다.

이동면 사장은 올 3월 대표에 취임한 만큼 연임이 유력하다. 다만 금융지주 계열사 사장들은 ‘2+1’의 3년 임기를 채웠다.

곽진산 기자 jinsan@



IT의 힘으로 AI의 미래로

대한민국 IT 역사를 개척해온 송실,
송실의 DNA에는 AI가 있습니다.

2021학년도 수시모집

융합특성화자유전공학부 학생부종합전형(SSU미래인재) 83명 모집

- 접수기간 | 2020년 9월 24일(목) 10:00 ~ 9월 28일(월) 18:00
- 입학안내 | 02-820-0050~4
- 홈페이지 | admission.ssu.ac.kr
- 논술고사 일정 | 2020년 12월 4일(금) ~ 12월 5일(토)

〈소프트뱅크 회장〉

“손정의, 美 기술주 교란 배후”… 쓴맛 본 개미들 ‘분노’

“4.8兆 콜옵션 매수 ‘나스닥 고래’는 소뱅”… 역회전 공포 ‘매도폭탄’
투자자들 비난에 孫 “지속 매수” 진화 나섰지만 증시 불확실성 커져

최근 한 달 간 고공 행진하며 사상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던 미국 나스닥지수가 갑자기 주저앉은 배후에 손정의(사진) 회장이 이끄는 일본 소프트뱅크그룹이 있었던 사실이 드러나자 투자자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4일(현지시간) 소프트뱅크가 지난달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MS), 넷플릭스, 테슬라 등 나스닥에 상장한 대형주 관련 콜옵션 40억 달러(약 4조8000억 원) 어치를 사들였으며 소프트뱅크가 나스닥 고래였다고 보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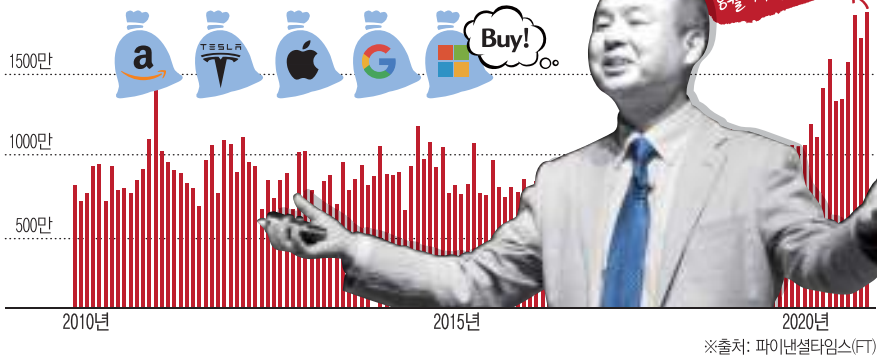
콜옵션은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사들일 수 있는 권리로, 주가가 오를수록 가치가 상승하는 구조다. 콜옵션은 레버리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소프트뱅크의 콜옵션을 통한 투자를 현물 주식으로 환산하면 500억 달러어치를 사들인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

소프트뱅크가 시장을 교란한 나스닥 고래였다는 보도가 나오자 시장에서는 주식 액면분할 계획 발표 후 유난히 크게 뛰었던 테슬라와 애플의 밸류에이션이 과대 평가된 것이었는지를 두고 서둘러 분석에 나섰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만약에 누군가가 대규모 풋옵션을 행사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소프트뱅크 같은 큰 기업이 관여하지 않았다면 주목을 덜 받았을 것이다”, “애초에 미국 중앙은행이 시장 하락을 막기 위해 뭘든 할 것이라는 믿음을 준 게 잘못이다”, “지금의 시장은 실물 경제와 너무 동떨어져

미국 개별주식옵션 거래량 추이 (단위 : 건)



있어서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떨어질 것이었다”는 등의 반응이 나왔다.

아울러 소프트뱅크의 역회전 우려가 확산하면서 기술주에 매도 주문이 폭주, 나스닥지수는 3~4일 연이틀 5%대 급락세를 보였다. 애플과 테슬라 주가는 3일 각각 8%, 9% 폭락했다가 이튿날에는 소폭 오름세를 보였다.

투자들이 비난하는 것도 바로 이 부분이다. 소프트뱅크 같은 큰 손이 옵션 거래에 나서면 개인 투자자들까지 옵션 거래에 따라나서 시장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소프트뱅크의 대규모 콜옵션 매수를 밝혀낸 FT와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콜 시장에 고래가 있다’는 소문이 나돌면서 취재에 들어간 것이었다.

문제는 소프트뱅크가 아직도 어느 정도의 옵션 잔고를 갖고 있는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소프트뱅크 같은 거물에다 개인들까지 투기 세력에 합류하면서 증시 불안정성이 높아졌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일부 옵션 거래가 해소된 것을 계기로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상황이 될 가능성을 경계한다. 미국 주가에 연동한 콜옵션 매수 잔고는 올해 들어 급증해 6월 시점에 이미 사상 최고치에 도달했다.

배수경 기자 sue6870@



미국 노동절 연휴 첫날인 5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산타모니카 해변이 폭염 속 열기를 식히려는 인파로 북적이고 있다. 캘리포니아 등 일부 지역은 연휴 내내 40도를 웃도는 폭염에 시달릴 전망이다. 이에 북적이는 해변이 코로나19 재확산의 진원지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5월 하순 메모리얼 데이(현충일) 연휴가 코로나19 2차 유행을 촉발한 전례가 있는 만큼 보건당국은 방역 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당부했다. 산타모니카/AFP연합뉴스

美 노동절 연휴 ‘코로나 재확산’ 경계령

하루 신규 감염 5만명 넘어… 방역당국, 행사 취소 등 비상대응

노동절(9월 7일) 연휴를 맞이한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갑자기 늘면서 방역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연휴 전날 5만 명 이상의 신규 코로나19 환자가 보고된 데다 5월 메모리얼 데이(현충일) 연휴도 폭발적인 감염 확산의 기폭제가 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에서 사흘간의 노동절 연휴를 앞둔 4일 5만 명 이상의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이날 미국의 코로나19 신규 감염자 수는 5만502명으로, 지난달 중순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존스홉킨스대학이 집계한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5일 현재 620만 명이 넘으며, 사망자 수는 18만 8000명 이상이다.

미국은 5월 25일 메모리얼 데이 연휴 때도 코로나19 환자 급증을 경

험한 터라 이번 노동절 연휴도 폭발적 감염이 일어날 가능성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메모리얼 데이 연휴 한 달 후 일주일 평균 신규 코로나19 환자 수는 6만 명 수준으로 치솟았다. 경제 봉쇄 완화와 맞물려 많은 사람이 해변이나 공원에 물리면서 텍사스, 플로리다,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등 선벨트 지역의 코로나19 감염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각 주지사, 보건당국자들은 일제히 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백악관 브리핑에서 “노동절 연휴 기간에도 경계심을 늦추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 두기, 손 씻기 등을 당부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전염병 연구소 소장도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방역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노동절 이

후 감염자가 많이 늘어나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버드 T.H. 쉐 보건대학원의 마이클 미나 전염병학 조교수는 “우리는 더 큰 위기감을 가지고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주의 주지사도 이번 연휴 대규모 모임에서 바이러스가 퍼질 가능성을 경고하며 긴 주말 동안 예방 조치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트위터 통해 “노동절 주말이 다가오는 가운데 코로나19는 쉬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라”면서 “마스크를 쓰고, 똑똑하게 굴어야 한다. 계획을 잘 세워라”고 역설했다.

상황이 이처럼 심각해지자 노동절 관련 이벤트들이 대거 취소됐다. 매년 노동절 주말 서부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서 열린 ‘셍템페 페스트’는 43년 첫 개최 이후 처음으로 취소됐다. 보통 셍템페 페스트에는 3만5000여 명이 참석했다.

변호선 기자 hsbhun@

美 ‘中 반도체 자립’ 전방위 압박 SMIC도 ‘블랙리스트’ 포함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위탁생산업체 SMIC를 ‘블랙리스트’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테크놀로지에 한 것처럼 엄격한 제재를 부과해 반도체의 자금자족을 지향하는 중국 정부를 견제할 목적으로 보인다.

5일(현지시간) 미국 경제매체 CNBC방송 등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SMIC를 상무부의 블랙리스트인 ‘엔티티 리스트’에 추가할지를 논의 중이다. 현재 국방부는 SMIC와 중국군의 관계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블랙리스트에 오르면 미국 기업에서 제품을 구입할 때 미국 정부의 특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미국 정부가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부품 등을 공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현재 미국 엔티티 리스트에는 275개 이상의 중국계 기업이 포함돼 있다. 여기에 중국 정부가 반도체 자립을 목적으로 오래전부터 키워 온 SMIC를 추가하겠다고 검토하고 나선 것이다.

SMIC는 미국 정부의 제재 움직임에 대해 “우리 기술은 군사용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SMIC는 이날 성명에서 “반도체를 생산하고,

서비스 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민생용이며, 중국군과는 관계가 없다. 우리와 중국군과의 연계에 대한 어떠한 가정도 허위이며, 잘못된 비난이다”라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의 움직임은 중국 기술 기업에 압박을 가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라고 CNBC는 평가했다. 지난달 미국 정부는 자국 기술을 조금이라도 활용한 반도체 제조사가 화웨이와 원칙적으로 거래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강화된 제재를 이달 15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을 시에는 예외적으로 거래할 수 있지만 어디까지 허용될지는 미지수다. 이러한 미국 정부의 중국 기업 옥죄기는 최근 ‘화웨이 때리기’를 넘어 정보기술(IT) 기업으로까지 확대되면서 전선을 넓히고 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6일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 등 중국 인터넷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같은 달 14일에는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바이트댄스에 대해 향후 90일 이내에 틱톡의 미국 내 사업체와 관련한 자산을 모두 매각하라고 명령했다.

배수경 기자 sue6870@

아마존 ‘중국發 수상한 씨앗’ 씨 말린다

“외국업체, 미국내 씨앗 판매 금지”

중국에서 미국 전역으로 배달된 ‘미스터리 씨앗’ 사건 이후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닷컴이 외국인의 미국으로의 씨앗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아마존은 해외 판매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9월 3일부터 미국으로의 식물이나 씨앗 제품 판매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알렸다. 아울러 아마존은 미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중국 등 동아시아 업체들의 씨앗 판매 광고도 모두 없앴으며, 미국 내 배송이라 할지라도 해외 업체의 씨앗 판매는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아마존의 이러한 조치는 올여름 발생한 ‘씨앗 미스터리’ 사건에 따른 것이다. 최근 몇 달 동안 워싱턴, 조지아, 캔자스, 메릴랜드, 미네소타, 네바다 등 미국 전역에서는 수천 명의 사람이 주문하지 않은 씨앗을 소포로 받는 일이 발생했다. 대부분은 중국 소인이 찍혔고, 포장에는 장신구나 장난감 등 다른 상품으로 표시돼 있었다.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과 캐나다 등 지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났다. 이 미스터리한



7월 미국 워싱턴 주 농업당국이 게시한 의문의 씨앗. 사진제공 워싱턴주 농무부

사건에 중국발 생화학 테러가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왔지만, 다행히 씨앗은 양배추나 겨자 등 일반적인 식물의 씨앗인 것으로 확인됐다.

위험한 종류는 아닌 것으로 밝혀졌지만 전문가들은 그 씨앗을 절대 심지 말라고 경고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농무부, 국토안보부 산하 관세국경보호청, 연방 우체국 등 여러 기관이 의문의 씨앗 배송을 조사하고 있다. 씨앗 발송처를 밝히고, 앞으로 배송을 멈추게 하기 위해 중국 당국과 공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씨앗 소포에 있는 우편물 라벨이 위조됐다고 주장하고, 조사를 위해 미국에 소포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선 기자 hsbhun@

숲속에서 ‘출근도장’... “시냇물 발 담그고 원격근무”



집 밖으로 나온 재택族

#일본에서 홍보 회사를 경영하는 사쿠라이 료타로 씨는 최근 가족과 5박 6일 동안 일본 야마가타현 자오의 한 별장에서 꿈같은 시간을 보냈다. 그가 낮에 일하는 동안 아내와 두 자녀는 근처에서 관광을 즐겼고, 여가 시간에는 온 가족이 별장에 모여 휴식을 취했다. 사쿠라이 씨는 “숲에 둘러싸여 시냇물 소리를 들으면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좋았다”고 했다.

일본 공영방송 NHK가 소개한 이 사례는 여행지나 리조트에서 휴가를 즐기면서 회사 일을 병행하는 ‘워케이션(work+vacation)’이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새로운 근무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원격근무가 보편화하면서 근로자들은 평일에도 사무실에 매여있을 필요가 없게 됐다. 이처럼 사무공간의 자율성과 근무 방식의 유연성이 확대되면서 재택근무를 넘어 휴가지에서 업무를 하는 근무 형태가 부상하게 된 것이다. 미국 등에서는 이 워케이션이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는 정부가 앞장서서 이를 적극 장려하고 있다.

미국의 경제 매체 CNBC 방송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최근 원격근무지와 여가를 같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동시에 충족하기 위해 외딴곳을 찾고 있다. 휴가용 숙소 렌탈 검색엔진 ‘홈투고’의 마이크 피어스 대변인은 “최근 시골 지역에서 와이파이와 인터넷 접속이 잘 되는 휴가용(숙소) 렌탈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사람들은 숙소



예약 전에 인터넷 속도나 근처 커피숍에서 일할 수 있는지를 문의한다”고 말했다.

호텔이나 리조트를 찾는 워케이션족도 많아졌다. 메리어트인터내셔널의 헤더 스타인-하트 서부지역 총지배인은 워케이션을 “거대한 추세”라면서 “5성급 숙박 시설에서 점심시간 룸서비스 전화가 늘어났으며, 헤드폰이나 다른 사무용품에 대한 요청도 많아졌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흐름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호텔 및 리조트 업계에는 희소식이다. 워케이션 고객이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관광객의 발길이 끊긴 수요를 상쇄시켜 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미국 중서부 콜로라도에 위치한 세인트 레지아스펜리조트는 지난달 27일 ‘뉴알파인 오피스 아넥스 패키지’를 출시, 객실을 휴가 동안 업무를 처리하려는 여행객들을 위한 사무공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내년 봄까지 이용 가능한 이 패키지는 숙박 시설뿐만 아니라, 아침에는 스페셜티 커피를, 저녁에는 애프터-워크 각테일을 특전으로 제공한다. 구글 네스트 와이파이 인터넷 부스터와 로데 와이어리스 소형 마이크, 화상회의를 위한 조명 등도 서비스로

제공된다.
캘리포니아주 몬테시토에 있는 로즈우드 미라마 비치 호텔도 해변이 보이는 스위트룸을 사무실로 탈바꿈시켜 ‘원격 사무실 패키지’ 상품을 내놔다.
이달 1일 문을 연 멕시코 리비에라 나야리트 지역의 콘래드 폰타 데 미타는 오픈 기념 상품으로 ‘워크 프롬 파라다이스 패키지’를 선보였다. 이 패키지는 워케이션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프리미엄 와이

파이 접속, 조기 체크인과 늦은 체크아웃, 마사지 50%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 위치한 호텔 피게로아는 최근 268개 객실 중 일부를 ‘데이 유스(day-use·낮 시간에 객실을 빌려주는 것) 사무실’ 상품을 출시했다. 호텔 피게로아의 코니 왕 이사는 “이것은 재택근무자들이 집 밖으로 나와 깨끗하고 조용하며 사회적 거리가 유지되는 공간에서 근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면서 “초고속 와이파이, 무제한 인쇄, 무료 주차 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일본에서는 방문객 감소로 직격탄을 맞은 관광산업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워케이션을 장려하고 있다. 일본 환경성은 온천이나 국립공원 등지에서 워케이션이 가능하도록 와이파이 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체에 보조금을 주기로 했다. 일본 도치기현의 주젠지거나야호텔이나기누가와파크호텔은 객실 일부를 사무실로 개조하거나 대연회장을 회의실 및 회사 연수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등 워케이션족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변효선 기자 hsbun@

“카리브해서 재택근무하세요” 코로나 특별비자 파는 나라들

바베이도스, 경제활성화 자구책
원격근무용 ‘1년 살기’ 비자 내놔
에스토니아·버뮤다 등서도 개시

#영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여행 블로거로 활동 중인 크리스 스티븐스 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집에 발이 묶이면서 좀이 쑤신다. 그는 지난 10년 동안 무려 40개국을 여행했다. 현재는 호주에서 여자 친구와 지내면서 카리브해의 섬나라 바베이도스로 갈 궁리를 하고 있다. 바베이도스 정부가 원격 근로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특별 비자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7월 바베이도스 정부는 ‘바베이도스 웰컴 스탬프’ 제도를 발표했다. 이 제도는 외국인인 1년 동안 바베이도스에 체류하면서 일할 기회를 제공한다. 원격근로자들을 위해 설계된 웰컴 스탬프는 가격이 저렴하지는 않다. 하지만 이 비자를 보유한 사람은 1년 동안 여러 번 출입국할 수 있으며, 자녀가 12세 미만이면 공립학교에 무료로 다닐 수도 있다. 이 제도는 바베이도스 국내 총생산(GDP)의 약 40%를 차지하는 관광업이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자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바베이도스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한 외국인들의 장기 체류가 짧은 여행보다는 코로나19 유행 위험이 낮으면서도, 비슷한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바베이도스는 나라를 잘 알지 못했던 이들도 ‘해변에서의 원격근무’라는 매력적인 아이디어에 관심을 보인다고 다른 카리브해 나라들도 이러한 선례를 따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향후 수개월 동안 전 세계 노동자 중 30%는 원격근무를 할 것으로 추정되며, 수백만 명의 아이들의 원격수업도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관광산업에 직격탄을 맞은 나라들이 바베이도스와 유사한 계획을 내놓는 이유다. 현재 유럽 발트해에 면한 에스토니아와 북대서양에 있는 영국령 섬인 버뮤다 등이 바베이도스와 비슷한 프로그램을 내놔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에스토니아는 8월 1일 원격근로자들을 위한 ‘디지털 노마드(Digital Nomad) 비자’를 내주기 시작했다. 이 비자는 방문객들이 에스토니아에 합법적으로 머물면서 최장 12개월까지 자국에 있는 소속사를 위해 원격으로 근무하는 것을 허용한다.

핑크빛 모래사장으로 유명한 버뮤다제도도 지난달 1일 ‘워크 프롬 버뮤다’ 프로그램을 개시했다.

데이비드 버트 버뮤다 총리는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 올린 서한을 통해 “규제나 높은 감염 위험이 따르는 인구 밀집도 높은 도시에서 아파트에 갇혀있을 필요가 없다”며 “1년 동안 물 위에서 일하거나 코딩하면서 보내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변효선 기자 hsbun@

아이들 편에서 들어주세요

아이들의 목소리로
만드는 세상
굿네이버스가
함께합니다

굿네이버스는 한국에서 설립되어 굶주림 없는 세상,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전문사회복지사업과 국제개발협력사업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는 국제구호개발 NGO입니다.

아이들 편에서 좋은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아동청원에 참여해 주세요.

〈주택 관련 대출〉

2년 내 처분 약속 지켰나… 위반 땐 3년간 대출 금지

부동산 민심 수습 나선 금감원

금융감독원이 2년전 9·13 대책 이후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가 약속을 지켰는지 집중 점검에 착수한다. 1주택을 가진 상태에서 규제지역에 있는 집을 사려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이들의 기존 주택을 처분하기로 한 '2년 이내' 약정일이 이달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이에 금융기관은 약정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차주가 이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 대출금 회수와 함께 약정 위반여부 등록 조치(3년간 주택관련 대출 금지)를 이행한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주택대출 규제 준수여부 검사에 착수하는 등 부동산 민심 수습을 위한 본격적인 후속 조치에 나선다. 이를 위해 시중은행·보험사·상호금융사들과 신용정보원은 '주택 관련 대출 추가약정 이행 현황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오는 7일부터 실제 운영에 들어간다.

◇2년 내 처분·전입, 주택담대 점검 = 정부는 지난 2018년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의 하나로 처분 및 전입 조건부 주택담보대출 약정을 시행했다. 1주택자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을 포함한 규제지역에서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

내주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가동

주택 매각·실거주 조건 대출 차주 약정 미이행 땐 대출 회수 등 조치

은행 신용대출 자금 흐름 확인

DSR 미반영·법인 대출 우회 등 위반사항 적발 땐 현장검사 제재

는 조건으로 주택담대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무주택자는 규제지역에서 9억 원 초과 주택을 살 때 2년 내 전입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달부터 이런 약속을 지켜야하는 기간이 순차적으로 돌아온다. 금감원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존 주택을 파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6월 말 기준 3만732명이었다. 이 가운데 주택을 처분한 사람은 7.9%(2438명)였다. 올해 안에 집을 매각해야 하는 사람은 1270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은 주택담보대출자들이 주택 매각·전입 의무 약정을 제대로 지켰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한



다. 미이행자를 골라내고, 이들에 대한 '대출금 회수',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제한' 등의 실질적 제재에 착수하기 위한 것이다. 이 시스템은 은행 등 금융기관과 주택담보·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이 2018년 9·13 대책을 시작으로 올해 6·17 대책에 이르기까지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체결한 '대출 추가약정' 관련 정보를 한곳에 모으고 공유하기 위한 네트워크다.

취합 대상 추가 약정에는 △무주택 세대가 부동산 규제지역 주택을 샀을 때 체결한 신규 구입주택 전입 의무 약정 △1·2주택 보유 세대의 규제지역 주택 추가 구입(분양권 포함)에 따른 기존 보유주택 처분

및 신규 구입주택(입주예정 주택 포함) 전입 의무 약정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의 추가 주택구입 제한 약정 등이 포함된다.

규제지역 소재 고가 주택(시가 9억 원 초과)을 보유한 집주인이 임대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임대보증금 반환 대상 주택으로의 전입을 약속하는 약정 등도 취합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신용대출 증감, 규제 준수 확인 = 금감원은 최근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들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 준수 여부와 관련한 서면자료를 요청했다. 신용대출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갔는지 확인

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출 시 신용대출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등을 중점 점검한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현재 은행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사려는 사람에게 DSR 40% 이하를 적용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위반 사례 여부를 확인한다.

개인사업자·법인 대출 등을 활용해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편법 대출이 이뤄졌는지도 중점 점검 대상이다. 시설 자금 등 용도로 자금을 빌린 후 부동산 투자에 쓰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 대출 자금이 용처에 맞게 쓰였는지 등을 점검한다. 금감원은 은행들로부터 제출받은 서면 자료를 바탕으로 규제 위반이나 의심 건을 발견할 경우 현장검사에도 나설 계획이다. 현장검사에서 구체적인 위반 내용을 확인할 경우 대출금 회수하도록 하고 제재절차도 진행할 방침이다.

윤석현 금감원장은 최근 주재한 임원 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과열 등으로 가계대출 증가 폭이 다시 확대되고 있다"며 금융사의 대출 규제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사례가 적발되면 엄중히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김범근 기자 nova@

소상공인 '코로나 대출' 금리·진입장벽 낮춘다

2차 대출 10兆 중 5873억 실행 저조... 한도 상향·조건 완화 검토

금융당국이 최근 인기가 시들해진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대출 지원 프로그램 활성화에 나선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상공인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진입장벽을 낮춰 소상공인 대출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6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이 이달 3일까지 실행한 소상공인 초저금리

이자보전 대출(1차 긴급대출) 건수는 모두 7만9827건, 1조9824억 원이다. 우리은행의 소진율이 95%로 가장 높고, 나머지 은행은 아직 60~70% 수준으로 아직 한도가 넉넉히 남아있다.

수요가 줄면서 부족한 공급을 충당하기 마련된 2차 대출 실적은 더 저조하다. 5개 은행과 기업은행의 2차 소상공인 긴급대출 실행액은 5873억 원이다. 2차 대출 규

모가 총 10조 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나머지 한 곳인 대구은행을 합하더라도 소진율은 한 자릿수에 불과하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수도권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연장되는 등 영세 소상공인의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이로 인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상품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시중은행에서 실행한 1차 대출은 고신용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대상이 많지 않았고, 2차 대출은 중복 신청이 되지 않고 한도가 1000만 원으로 낮아 아쉬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대출 한도 상향, 요건 완화 등 보완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는 현재 소상공인 실태와 수요 파악을 마치고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조만간 보완책을 결정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을 포함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곽진산 기자 jinsan@

신한銀,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지원

신한은행은 무역보험공사와 수출기업이 수출 채권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도록 돕는 '수출신용보증 포괄매입 매입외환' 상품을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

매입외환은 은행이 사들인 수출환어음 등을 일컫는 것으로, 은행은 이를 사들이면서 국내 수출업체에 외국 수입업체 대신 돈을 미리 지급하고 나중에 수입업체로부터 충당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신용거래를 통해 매입외환 업무를 진행하느라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던 수출기업들은 수출채권을 빨리 현금화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김범근 기자 nova@

www.douzone.com

DOUZONE

ERP, 그 이상의 진화 더존 ERP 10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으로 변화하는 미래를 예측하고, 반복적인 업무는 대신하며, 언제 어디서든 기업의 필요에 따라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단 하나의 ERP-

더존 ERP10과 만나는 순간,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한 차원 더 높아질 것입니다

경영관리 효율은 물론, 기업가치의 극대화까지-
지금, 더존 ERP 10에 주목하십시오!



안정적인 도입부터 차별화된 관리까지, 더존이라면 가능합니다



IBK-항균카드,
너만 있으면 안심!

카드 앞·뒷면
항균필름 코팅

항균성 99.9%로
각종 세균 및
바이러스 전파 방지

국민 안심 카드

DailyWith

데일리위드

DailyWith 데일리위드

·발급대상 : 개인(본인 및 가족)

·브랜드 및 연회비 : Mastercard / UnionPay 1만2천원, BC(국내전용) 1만원

건강지킴이 ·항균성 99.9%, 각종 세균 및 바이러스 전파 방지

생활도우미 ·1% 캐시백(6대 생활영역), 최다 사용 생활영역 1% 추가 캐시백
6대 생활영역 : 음식점(커피), 온라인쇼핑, 마트(편의점), 대중교통(주유), 통신비, 병원비

▶연체이자율: 회원별, 이용상품별 약정금리+최대 3%(법정 최고금리 24% 이내) ※단, 연체 발생 시점에 약정금리가 없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 · 일시불 거래 연체 시: 거래발생 시점의 최소기간(2개월) 유이자 할부금리 · 무이자 할부 거래 연체 시: 거래 발생 시점의 동일한 할부 계약기간의 유이자 할부금리 · 그 외의 경우: 약정금리는 상법상 상사법정이율과 상호 금융 가계자금대출금리* 중 높은 금리적용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대출금리(신규대출 기준) ▶여신금융상품 이용 시 귀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카드 신청 시, 혜택 제공조건 등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통해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신용카드 남용은 가계경제에 위협이 됩니다.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여신금융협회 심의필 제2020-C2b-07760호(2020.08.27)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0-3240호(2020.08.12) 게시기한: 2023.08.11 · 개별 상품에 관한 자세한 문서는 거래영업점 또는 IBK고객센터(☎1566-2566)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카드 이용 시 제공되는 포인트 및 할인혜택 등의 부가서비스는 카드신규출시(2020.08.24)이후 3년 이상 축소폐지 없이 유지됩니다. · 상기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카드는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① 카드사 또는 부가서비스 제공 관련 제휴업체의 휴업 · 도산 · 경영위기, 천재지변, 금융환경 급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의 발생 ② 카드사의 노력에도 제휴업체가 일방적으로 부가서비스 변경을 통보(단, 다른 제휴업체를 통해 동종의 유사한 부가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경우 제외) ③ 카드 신규출시 이후 3년 이상 경과했고 해당 카드의 수익성 유지가 어려운 경우 · 카드사가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부가서비스 변경 사유, 변경 내용 등을 사유발생 즉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개별 고지해 드립니다. 특히 카드 신규출시 이후 3년 이상 경과했고, 해당 카드의 수익성 유지가 어려워져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6개월 전부터 매월 개별고지 해 드립니다. 개별고지 방법: 카드대금청구서, 우편, 이메일, 휴대문 문자메세지 중 하나 · 필요이상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으신 경우 회원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이용한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은행거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IBK기업은행의 분쟁처리규에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분쟁 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 IBK기업은행: ☎080-800-0119) · IBK기업은행은 금융·항우를 받지 않습니다. 윤리경영 위반사실이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02-729-7490, e-mail: ibkethics@ibk.co.kr)

참! 좋은 은행
IBK기업은행

항공업계 “비행기 띄우면 돈 버는 시대 지났다”

포스트 코로나 ‘V자 회복’ 난망
해외선 기내 거리두기 적용 논란
“수익 악화로 요금 뺀고 수요 폭”
IATA 회장 “저비용 여행 끝나”

“비행기 띄우면 돈 버는 시대는 지났다. 저비용 해외여행도 끝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실적 수렁에 빠진 항공업계가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여객 수요의 패러다임 변화로 ‘V반등’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항공기 내에도 적용되면서 운임과 수익성을 비롯한 산업 구조가 이전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세계 각국의 입국 제한이 지속하며 해외여행 수요 역시 바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항공정보포털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국제선 이용객은 21만8136명으로, 전년 동기(796만3263



대한항공 직원들이 A380 항공기 내부 소독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대한항공

명) 대비 97.3% 감소했다.

여행 수요 자체가 적다 보니 국내 일부 항공사는 탑승률에 따라 유동적으로 거리두기 좌석을 시행하고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좌석을 배치할 때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하고 있다. 수익성은 안 나지만 애초에 여행 수요가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향후 이동제한이 해제되더라도 밀집된 환경을 피하기 위한 좌석 배치와 비대면, 거리두기에 대한 이용자들의 요구

는 이어질 전망이다.

문제는 이 같은 변화가 항공사들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좌석 수가 줄어 들면 항공사들은 이익 확보를 위해 요금을 올려야 하는데, 이는 다시 항공 여행 수요 감소로 이어져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게 된다. 허희영 항공대 교수는 “항공의 대중화라고 하는 경제성이 예전 같지 않을 것”이라면서 “전 세계적으로 항공 수요의 30%는 줄게 될 것”이라 전망했다. 이어

“좌석 배치와 비행기 내 구조가 바뀌면서 운임이 오르고 장거리 승객부터 감소하게 될 것”이라 덧붙였다.

이미 해외에서는 좌석 간 거리두기가 업계의 이슈다. 유럽연합(EU)이 4월 항공기 내 거리두기를 추진해 업계의 반발이 일어난 바 있다. 미국에서도 관련 규제의 실행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알렉상드르 드 쥐니악 IATA(국제항공 운송협회) 회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단 2곳 남은 日 정유사, 정제시설 통폐합…韓 ‘발등에 불’

코로나로 사업 다각화 가속
SK이노, 배터리·소재 확대
GS칼텍스, 바이오연료 개발

인구 고령화와 친환경차의 등장 등에 따른 석유 수요 감소로 일본에서 정유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정제시설 통폐합까지 이뤄지는 가운데 비슷한 사업 환경을 가진 국내 정유사들의 위기론이 나오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까지 겹친 최악의 경영환경에 정유사들이 일본의 정유 산업을 반면교사 삼아 사업 다각화 등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6일 페트로넷에 따르면 일본 정유사 에네오스 홀딩스(ENEOS Holdings)는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전 세계 대유행)으로 석유 수요가 예상보다 많이 감소하면서 정제시설 통폐합을 추진하고 저탄소 에너지 공급업체로의 변모를 꾀할 것이라 계획을 발표했다.

에네오스는 11개 정제시설을 운영하며 총 정제능력이 하루 193만 배럴(b/d)에 달하나, 올해 2분기 정제가동률은 68%로 2010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에 오사카 정제시설(11만 5000b/d)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미 일본의 정유 산업은 수차례 구조조정이 이뤄졌다. 정부 주도로 15개에 달했던 석유회사들은 4곳으로 줄었고, 최

근 이마저도 다시 조정에 들어가 에네오스와 이데미츠 코산 등 2개사만 남았다.

업계에선 고령화와 연료 소비 위축 등 같은 사업환경에 처한 국내 정유사들도 선제적으로 시장 악화에 대응해야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석유 시장은 다양한 도전에 맞닥뜨린 상황”이라며 “국내 정유사들도 이를 인식하고 선제적으로 사업 포트폴리오가 정유 부문에만 치중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정유사들은 비(非)정유 부문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 포트폴리오 재구성에 나섰다. 디지털 전환(DT) 등 혁신 기술을 접목해 성장동력 마련에 힘쓰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그린 밸런스(Green Balance) 2030’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전기차 배터리와 저탄소 바이오 연료, 초경량 자동차 소재와 같은 친환경 제품을 확대하고 있다.

현대오일뱅크 또한 친환경 윤활유 등 미래에 맞춘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GS칼텍스는 기존 사업 경쟁력 강화 및 신규 포트폴리오 구축을 위해 올레핀 사업에 투자하는 한편, 바이오 연료 등 친환경 제품 개발 및 상업화에도 한창이다. 에쓰오일(S-OIL) 또한 잔사유 고도화 시설(RUC)과 다운스트림(ODC) 시설 등 석유화학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다.

김유진 기자 eugene@

한화에어로 방산 물자 방사청 인센티브 유지

최종 승소로 ‘이윤 10%’ 지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방위사업청과의 ‘인증지위확인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며 방산물관리 인증기관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방산물관리 인증제도란 방산물자의 원가관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 2012년 도입한 제도다. 인증을 받은 업체는 방산물자에 대해 총 원가의 1%에 해당하는 추가 이윤을 인센티브 형태로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방산물자의 평균이윤율이 원가의 10%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인증 여부에 이윤의 10%가량이 달린 셈이다.

6일 방산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제기한 ‘인증지위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방사청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최종적으로 방산물관리 인증기관의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하수급업체 광성마이크로텍의 허위 원가자료제출에 대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방사청의 지시에 따라 사격통제장치의 유일한 방위산업체인 한화시스템으로부터 사격통제장치를 공급받기로 했고 한화시스템은 여기에 필요한 전원공급장치를 광성마이크로텍에서 공급받은 것에 불과하다”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계약 내용 결정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광성마이크로텍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받은 ID로 국가통합원가시스템에 접속해 원가자료를 직접 제출했는데 그 과정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어떤 관여를 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건의 시작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방사청과의 계약에서 사격통제장치 구매를 한화시스템에 하도급 주고, 한화시스템은 이중 전원공급장치 구매를 광성마이크로텍에 재하도급 주는 과정에서 광성마이크로텍이 원가를 허위로 부풀려 10억 원을 편취했다는 문제가 불거졌다. 김버리 기자 kimstar1215@

‘갤Z폴드2 톰브라운 에디션’ 온라인 추첨…9일 당첨 발표

삼성전자가 패션 브랜드 톰브라운과 협업한 프리미엄 패키지 ‘갤럭시 Z 폴드2 톰브라운 에디션’을 온라인 추첨 방식으로 한정 판매한다고 6일 밝혔다.

7일 오전 9시부터 8일 오후 6시까지 삼성전자 홈페이지에서 구매 응모를 할 수 있으며, 당첨자 발표는 9일 오전에 진행될 예정이다. 가격은 396만 원이다. 제품 배송은 25일부터 순차 진행될 예정이다.

외관 디자인은 톰브라운 그레이 색상에 멀티컬러 스트라이프 패턴을 실제 원단과 같은 질감으로 후면 글래스에 구현했다. 사용자 경험(UX)도 외관 디자인과 통합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시그니처 패턴을 잠금 화면까지 이어지게 하고, 배경화면에도 적용했다. 또 요일별로 바뀌는 톰브라운의 아트 스케치 잠금화면과 톰브라운의 세계관을 디지털화 한 전용 포토필터도 새롭게 선보인다. 패키지는 톰브라운의 상징적인 디자인 요소가 가미된 ‘갤럭시 워치’ 41mm 모델, ‘갤럭시 버즈 라이브’가 포함된다.

최승은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마케팅팀장(전무)은 “패션 하우스와의 협업을 통해 ‘갤럭시 Z 폴드2’의 혁신적인 기술과 예술적 디자인이 서로에게 영감을 주며 사용자에게 새로운 가치와 즐거움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록 기자 syr@



BTS가 ‘갤럭시 Z 폴드2 톰브라운 에디션’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7~8일 갤럭시 폴드2 톰브라운 에디션을 한정 판매한다. 사진제공 삼성전자

女 직장인 10명 중 7명 “男보다 승진·평가 불리”

성 평등, 일·가정 양립과 관련한 제도가 속속 도입되고 있지만, 직장인 여성 10명 중 7명은 여전히 회사생활에서 남성보다 불리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여성직장인 300명과 기업 인사담당자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여성 직장인 71%는 승진·평가·업무기회 등 회사생활 전반에서 ‘상대적

으로 불리하다’고 답했다. ‘차이 없다’와 ‘유리하다’는 답변은 각각 26.4%, 2.6% 수준이었다. 반면, 기업 인사담당자 81%는 여성 직장인에 ‘차별 없다’고 답해 상호간 큰 인식 차이를 보였다.

여성 직장인들은 회사생활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이유로 ‘출산·육아로 인한 업무 공백 우려(44.1%)’를 가장 많이 선택

했다. 이어 △여성 업무 능력에 대한 편견(29.1%) △남성중심 조직문화(9.8%) 순이었다. 직장 내 여성인력 활용 확대를 위해 필요한 과제로 여성 직장인은 ‘기업문화 변화’를 첫손에 꼽았고, 인사담당자는 ‘인프라 확충’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박준 대한상의 기업문화팀장은 “2019년 민간기업의 여성관리자 비율이 20.9%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라며 “평등하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창욱 기자 woogi@

써보니 무선청소기 '다이슨 디지털 슬림'



‘다이슨 디지털 슬림’은 V11 무선 청소기보다 20% 작아지고 무게는 30% 가벼워졌다. 다이슨 디지털 슬림을 풍선에 매달아 띄우는 시연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다이슨

노트북 무게에 파워 그대로 헤드 40% 경량화 손목 보호 배터리 탈부착해 작동 시간 ↑

가볍지만 세다. 다이슨이 새롭게 선보인 무선 청소기 ‘다이슨 디지털 슬림’의 첫인상은 매우 가벼우면서도 강력한 흡입력을 자랑했다.

다이슨 디지털 슬림의 무게는 1.9kg에 불과하다. 일반적인 노트북과 비슷한 무게다. 다이슨 디지털 슬림은 최신 모델인 V11 무선 청소기의 첨단 기술을 경량 기기에 집약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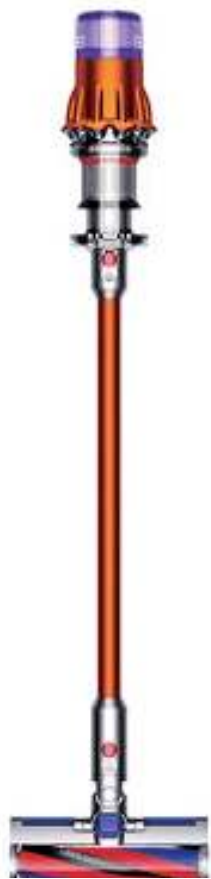
V11 무선 청소기보다 20% 작아지고 무게는 30% 가벼워졌다. 특히 우수한 청소 성능을 보이면서도, 40% 더 작고 더 가벼운 슬림 플러피 클리너 헤드를 갖추고 있다. 일체형 바디로 썰, 나사 및 내벽의 두께도 줄였다. 몸체는 15% 짧아지고 6.3mm 얇아졌다.

오랫동안 사용해 오던 다이슨 초기 모델인 ‘DC62’와 비교했더니 가벼운 무게가 더욱 두드러졌다. DC62 청소기의 경우, 피부가 크고 무거운 헤드로 오래 청소하면 손에 무리가 가는 경우도 자주 있었다. 그러나 디지털 슬림은 가벼운 무게 덕분에 손쉽게 제품을 들고 다니며 책상 위와 창문 틈새를 청소할 수 있다.

바닥청소도 훨씬 수월해졌다. 아이를 키우다 보니 바닥에 중간소음 방지 매트 깔았는데 청소기 헤드가 매트와 밀착돼 청소기를 앞으로 밀면서 흡입하는 게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청소기를 들어서 당기며 청소해야 한다. 다이슨 디지털 슬림은 가벼운 무게 덕분에 매트 위에서 청소기를 들어 당기면서 먼지를 흡입하는 게 수월했다.

작고 가볍고 강력한 다이슨 하이퍼디미엄 모터는 최대 12만rpm으로 회전해 강력한 흡입력을 만들어낸다. 전체 기기 필터 시스템이 0.3 마이크로 크기의 최소 입자 99.97%를 제거하고 깨끗한 공기를 배출한다.

디지털 슬림은 먼지를 빨아들이는 ‘싸이클론’



의 개수가 V11보다 3개 적은 11개로, 개수가 줄어든 만큼 무게가 줄었지만, 성능은 줄지 않았다. 싸이클론 모양과 각도를 조절해 공기저항을 줄이면서 미세먼지와 이물질을 강력하게 빨아들인다.

초장기 무선청소기들은 배터리 사용의 한계로 낮은 흡입력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이물질을 흡입했다가 다시 빨아내는 경우도 많았다. 다이슨 디지털 슬림은 부족한 흡입력과 배터리 결핍 문제를 모두 해결한 한층 진화한 무선 청소기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양한 보조 도구도 ‘창의적인’ 청소를 가능하게 한다. 특히 LED를 품은 라이트 파이프 크레비스 툴이 인상적이다. 크레비스 툴은 침구류 및 좁은 틈을 청소할 때 많이 쓰인다.

여기에 LED가 점등되면서 어두운 곳에서도 상태를 확인하며 청소할 수 있다. 콤비네이션 툴, 미니 모터 헤드 툴, 매트리스 툴, 스테이션 더트 브러쉬, 연장 호스 등 6가지 청소 툴(도구)을 활용하면 집안 틈새 곳곳의 먼지를 깔끔하게 청소할 수 있다.

무선 청소기의 단점인 배터리 문제를 해결한 점도 눈에 띈다. 손잡이 아래 장착된 배터리는 탈착할 수 있고 추가 배터리를 구매해 청소시간을 늘릴 수도 있다.

청소기 후면에 표시되는 남은 배터리 용량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편하다. 모드 버튼 위쪽의 작은 상태창에 배터리 남은 용량이 시간(분·초 단위)으로 표시된다. 청소모드는 일반 모드, 미디엄, 부스트 세 가지로 나뉜다. 본체 뒷부분 버튼을 눌러 모드를 전환할 수 있고 일반모드는 45분, 미디엄은 25~30분, 부스트는 7~10분간 청소할 수 있다.

퍼플컬러로 구성된 다이슨 디지털 슬림 플러피는 79만9000원, 각각 쿠퍼컬러와 골드컬러로 구성된 디지털 슬림 플러피 플러스와 디지털 슬림 플러피 프로의 소비자 권장 가격은 89만9000원이다.

권태성 기자 tskwon@

‘美 판매’ 형보다 나은 기아차

올 8월까지 현대차의 97% “신형 쏘렌토 가세하면 역전”

현대차보다 모델 3종 많고
텔루라이드 등 현지화 앞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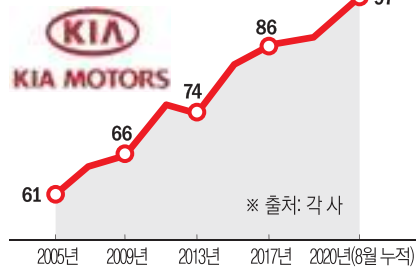
올해 기아자동차의 미국 판매가 현대차 동차를 추월할 것으로 전망된다.

6일 현대·기아차에 따르면 미국 현지에서 기아차의 올 1~8월 누적판매는 37만 2831대로 현대차(38만8635대)의 97% 수준에 달했다. 신형 K5에 이어 쏘렌토 판매가 본격화되면 기아차 판매가 현대차를 앞지를 것으로 관측된다.

2005년 연간 판매 기준으로 기아차의 미국 판매는 현대차의 60.6%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나 2008년 리먼 쇼크 이후 기아차는 약진을 본격화했다. 2011년 기아차의 미국 판매는 현대차의 75.1% 수준까지 치고 올라갔다.

정의선 당시 기아차 사장의 ‘디자인 경영’ 효과가 본격화하면서 기아차 디자인이 호평을 받기 시작한 무렵이다. 당시 등장한

현대차 대비 기아차
미국 판매 대수 비율
(단위: %, 현대차 100% 기준)



중형세단 K5(현지명 옵티마)의 약진도 힘을 보탤다. 이후 기아차의 미국 판매는 점진적으로 성장했다. 2015년 연간판매가 처음으로 현대차 판매의 82.1%를 차지하며 80%대에 올라섰다. 마침내 작년에 기아차의 미국 판매는 현대차의 86.7%를 기록하며 90%대 진입을 예고했다. 이런 전망은 올해 들어 현실화했다. 기아차의 미국시장 효과 모델인 중형 SUV 쏘렌토가 가세할 경우 현대차 추월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현대차그룹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기아차의 약진에는 다양한 배경이 존재한다. 기아차의 미국내 판매 모델이 14종으로 현대차의 11종(수소전기차 넥쏘 제

외)보다 많다. 현대차에 없는 스포츠 세단 △스팅어를 비롯해 준대형 세단 △K7(현지명 카덴자)과 대형 세단 △K9(현지명 K900)도 판매 중이다. 여기에 미니밴 △카니발(현지명 세도나)과 △쏘울과 △니로 등 크로스오버도 포진해 있다.

현지화 전략에서 현대차보다 앞서 있다. 기아차 텔루라이드는 미국 현지에서 생산해 미국에서만 판매 중이다. 꼼꼼한 조립 품질도 기아차의 약진에 한몫했다. 지난 6월 미국 J.D.파워가 밝힌 ‘2020 신차품질 조사(IQS)’에서 기아차는 6년 연속 일반 브랜드 1위에 올랐다. 현대차는 지난해보다 2단계 내려간 9위에 이름을 올렸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2015년 제네시스 브랜드가 출범했고, 미국 시장에서 현대차와 판매실적이 분리되면서 기아차와 격차가 상대적으로 좁혀진 게 사실”이라며 “현대차는 소품종 대량판매를 추진 중이고 기아차는 여러 차종을 판매하는 전략으로 나뉘었다. 판매 가격과 1대당 판매 인센티브 등을 고려하면 판매가 역전돼도 실질적인 수익은 현대차가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VOREL®

● 질수·수압상승 ● 항균·살균 ● 피부고민 ● 무독성·불순물제거 ● 녹 제거·염소 제거

우리집 수도물 안심 대책

이오나이트 필터 샤워기

5년 100만회 3종 복합 필터 사용기

무독성 항균 살균 피부고민개선 미네랄 불순물제거 녹 제거 염소 제거 질수 수압상승

유해물질부터 피부고민까지 해결! 보렐 이오나이트 필터 샤워기

① 2단계 필터시스템으로 불순물 제거
친환경 이오나이트 필터가 녹물과 불순물, 잔류염소는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 부유물까지 효과적으로 제거!

② 강력한 수압의 미세 살수
마이크로 플레이트에서 나오는 초강력 수압으로 부드러운 물방울이 만들어져 수압이 낮은 가정에서도 용이하게 사용!

이런 분들께 추천드려요

- 수도배관이 노후된 집에 살고 계신 분
- 샤워 후 피부 트러블이 발생하시는 분
- 피부가 건조하고 갈라지는 분
- 새 집 수도 상태가 걱정이신 분
- 수도세를 절약하고 싶으신 분
- 수압이 약해 샤워가 불편하신 분

③ 모공 속까지 깨끗한 샤워
피부 속 잔여 노폐물이 피부 트러블의 원인 중 하나! 미세하고 부드러운 물 입자가 피부 속 모공까지 깔끔하게 샤워!

④ 30% 절수 효과
미세 살수만 효과로 동일한 시간 동안 샤워를 해도 일반 샤워기에 비해 시간당 물의 양이 30%~40% 더 절약!

이오나이트 필터 샤워기(PACKAGE)

프라임(고급형)

이오나이트 필터 샤워기 1개(필터 미포함), 필터 3개, 향기캡슐 3종류 각 1개, 선용량 충전기 1개

소비자가격 ~~106,600원~~ → **84,480원**

렉서레일(중급형)

이오나이트 필터 샤워기 1개(필터 미포함), 필터 2개, 향기캡슐 1종류 각 1개

소비자가격 ~~69,900원~~ → **55,440원**

온·오프라인 통합 최저가 **20%**

매일 100분 한정판매 | 온·오프라인 통합 최저가 (카드 3개월 무이자 가능) | 온라인 주문 www.arambi.kr | 주문전화 **080-600-2020**

통신판매업자신고번호: 제 2019-서울송파구-0005호

한샘, 삼성과 가구·가전 융합 ‘스마트홈 시대’ 연다

리모델링 확대·리테일 판매 연계·스마트홈 솔루션 협력
“맞춤형 인테리어 등 미래 삶 바꿀 새로운 주거공간 제안”

종합 홈 인테리어 전문기업 한샘이 삼성 전자와 전략적 관계를 맺고 리모델링 사업 확대와 리테일 판매 연계, 스마트홈 솔루션 구현 등에 걸쳐 폭넓은 협력을 이어 나가기로 했다.

지난 4일 한샘과 삼성전자는 서울 상암동 한샘사옥에서 업무협약(MOU)을 맺고 ‘양사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전략적 사업협력’을 맺기로 합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강승수 한샘 회장과 이영식 부회장, 강봉구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 등 양사 경영진이 참석했다.

두 회사는 업무협약을 통해 리모델링 사업 확대를 위한 협력과 △리테일 판매 연계를 위한 공동 사업 발굴 △스마트홈 솔루션 구현을 위한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가구와 가전의 결합은 기능과 공간의 편리성 뿐 아니라 디자인의 조화로운도 이뤄

소비자들의 다양한 취향을 반영한 ‘맞춤형 인테리어’를 실현해 나간다. TV와 냉장고, 의류관리기, 에어컨, 식기세척기, 쿡탑 등 각종 가전은 집 공간과의 맞춤형 설계로 원래부터 하나의 제품인 것처럼 어우러지는 인테리어가 가능해진다.

이를 실현키 위해 두 회사는 다방면의 협력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먼저 리모델링 시장 공략을 위한 사업 확대에 나선다. 신제품 공동 개발을 통해 기존 제품의 라인업을 보강하고, 가구·가전 공동 패키지 상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맞춤형 가구와 가전 연계 판매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것은 물론 한샘의 리모델링 상품에 삼성의 비스포크 등을 결합한 가전 패키지도 선보인다.

매장 내 ‘숍인숍(shop-in-shop)’과 공동 매장 구축 등 양사의 리테일 협업을 위



강승수(왼쪽) 한샘 회장과 강봉구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이 공동사업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후 협약을 들어보고 있다. 사진제공 한샘

한 공동사업도 강화한다. 한샘 디자인파크에 삼성 가전이 입점하고, 삼성 디지털플라자에는 한샘의 제품이 전시되어 가구와 인테리어를 한번에 살펴볼 수 있는 새 유

통 채널을 구축할 예정이다. 첫 단계로 대구 디자인파크와 삼성 디지털프라자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 유통 채널을 만들고 향후에는 복합 매장 공동 출점 방안도 논

의한다. 이를 통해 가구와 가전 초기 구매 단계에서부터 공간 활용성과 편의성, 디자인이 어우러진 인테리어 상담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나아가 미래 주거환경을 혁신할 스마트홈 솔루션 구현을 위한 신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이미 한샘과 삼성전자는 한샘의 인테리어 설계 플랫폼 ‘홈플래너 시스템’을 공유하며 스마트홈 솔루션 분야의 협력을 이어 나가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서 강승수 한샘 회장은 “50년간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한 한샘과 세계 최고의 가전 기업인 삼성전자의 협력을 통해 미래의 삶을 바꿀 새로운 ‘주거 공간’을 제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봉구 삼성전자 한국총괄은 “각 분야 대표 기업으로서 양사가 축적해 온 기술과 노하우로 소비자에게 차별화된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더 나아가 새로운 주거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다원 기자 leedw@

네이버 “부동산 확인매물 공정위 제재 불복”

“수십억 들여 시스템 자체구축
카카오 무임승차하려고 한 것
공정위 혁신 외면 소송전 불사”

네이버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결정에 불복하기로 했다. 법적 소송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6일 공정위는 네이버가 ‘부동산 114’ 등 부동산 정보업체와 계약을 맺으면서 제공받은 부동산 매물정보를 제3자(카카오)에게 제공하지 못 하게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0억3200만원을 부과했다.

이같은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네이버는 “전후 사정을 공정하게 바라보지 못한 불공정한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공정위가 지목한 ‘네이버가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게 한 매물정보’란 네이버 부동산 서비스의 ‘확인매물정보’를 말한다.

이는 허위 매물을 근절해 이용자에게 정확한 매물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지난 2009년 네이버가 업계 최초로 도입한 서비스다. 네이버는 도입 초기, 수십억 원에 달하는 비용과 노력을 들였으며, 이를 인정받아 관련 특허도 2건 확보했다.

무엇보다 네이버 측은 사업 도입 초기 카카오를 비롯한 경쟁사들에게 공동 작업을 제안했지만, 해당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부득이하게 독자적으로 구축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네이버는 경쟁사인 카카오에서 네이버의 ‘확인매물정보’를 아무런 비용이나 노력없이 이용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이에 ‘무임승차’를 막고 ‘지식재산’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제3자 제공 금지 조항’을 넣게 됐다고 반박했다.

특히 카카오가 네이버 반대로 부동산정보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매물정보 수집이 무산됨에 따라 카카오 부동산 서비스 매물량과 매출이 급감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재는 이와 다르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카카오는 ‘네이버 확인 매물’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매물 정보를 확보할 수 있었다”면서 “카카오는 어떠한 비용과 노력도 들이지 않고 네이버 확인매물시스템을 거친 양질의 매물 정보를 손쉽게 확보하기 위해 매물정보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혁신과 노력을 통해 이용자 선택을 받은 결과를 외면하고, 무임승차 행위를 눈감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시장에서 혁신은 사라지고, 이용자 후생은 손상 될 것”이라며 “부동산 정보 서비스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법적·제도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yes@

‘서머너즈 워’ IP 신작 러시 컴투스, 글로벌 공략 박차

내년 2분기 출시 ‘크로니클’
게임쇼서 플레이영상 첫 공개

모바일 RTS 게임 ‘백년전쟁’
글로벌 CBT 후 내년 초 출시



컴투스가 ‘서머너즈 워’ IP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신작을 통해 성장을 준비하고 있다.

컴투스는 지난달 말 막을 내린 글로벌 최대 게임쇼 ‘게임스컴 2020’에 참가해 ‘서머너즈 워: 크로니클<사진>’의 플레이 영상을 처음으로 공개했다고 6일 밝혔다. ‘서머너즈 워: 크로니클’은 ‘서머너즈 워: 천공의 아레나’ IP를 활용해 만든 모바일 MMORPG다.

공개된 영상에는 매력적인 배경 그래픽과 캐릭터 디자인, 필드 및 레이더, 대규모 던전, 생활 콘텐츠 등 다양한 플레이 장면이 담겨있다. 특히 기존 원작의 핵심 콘텐츠였던 ‘소환수’가 캐릭터들과 함께 모험, 사냥, 전투 등을 벌이는 모습이 공개돼 기존 ‘서머너즈 워’ 팬들에게도 큰 관심을 얻었다.

컴투스는 내년 2분기 출시 예정인 ‘서머너즈 워: 크로니클’에 앞서 또다른 IP 활용작인 ‘서머너즈 워: 백년전쟁’의 출시도 준비 중이다. ‘서머너즈 워: 백년전쟁’은 소환수들을 기반으로 자신의 진영을 확장해가며 글로벌 유저들과 실시간으로 다양한 전략 전투를 즐길 수 있도록 한 모바일 RTS 게임이다. 지난 4월 FGT를 통해 좋은 반응을 얻었으며 오는 11월 누구나 참여 가능한 형태의 글로벌 CBT를 거친 뒤 내년 초 출시할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출시 6주년 이후에도 꾸준한 인기를 이 끌고 있는 ‘서머너즈 워’의 IP 파워와 타 인기 장르들을 접목한 차기작들에 대해 긍정적 전망을 내비치고 있다.

김진구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백

년전쟁 경우 기존 영지 중심에서 전투 중심으로 전환 개발 중으로 짧은 플레이 타임 내에서 실시간 대전 묘미를 극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크로니클 경우 소환수 등 몬스터간 전략적 조합 및 소환수 클래스 상성 변수 추가로 유저가 전투 상황에 맞는 수동 중심 플레이를 가져가면서 기존 여타 같은 장르 내 대비 경쟁우위가 클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서머너즈 워’ IP 차기작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며 시장에서는 컴투스에 대한 전망치도 동반 상승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

이민아 대신증권 연구원은 “서머너즈 워 IP를 활용한 실시간 전략 게임 백년전쟁은 내년 2월 출시를 앞두고 있어 연말 또는 연초 사전예약 시작되며 기대감 고조될 것”이라며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서머너즈 워(RPG)와 백년전쟁(RTS)은 서로 다른 장르 게임으로 매출 잠식 영향은 없다”고 분석했다.

컴투스는 오는 11월 중순 예정된 글로벌 e스포츠 대회 ‘서머너즈 워 월드 아레나 챔피언십 2020(SWC 2020)’ 결선 시점과 맞물려 전 세계 게임 팬들에게 2종의 차기작을 적극 알려 나갈 예정이다.

조성준 기자 tiatio@

비대면 업무 지원에… 中企 3000곳 신청

중기부,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예산 2880억 확보
화상회의·재택근무 등 ‘비대면 업무환경 구축’ 비용 지원

화상회의, 재택근무 등 비대면 업무 서비스를 갖추려는 중소기업이 3000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이같은 내용의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시행을 앞두고 공급 및 수요기업 신청·접수 결과를 6일 발표했다.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비대면 업무환경 구축을 위해 화상회의, 재택근무 등 비대면 서비스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규모는 올해 3차 추경을 통해 확보된 2880억 원, 지원 예정 기업수는 8만 개사다.

접수 결과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으로

수요기업 접수를 마친 기업은 총 3413개사다. 연내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이 가능한데다 아직 공급기업 선정도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수요가 높은 셈이다. 따라서 중기부는 서비스 공급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면 사업 신청은 가속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접수를 마감한 공급기업은 총 613개사다. 서비스 기준으로는 964개 서비스로 1개 기업이 최대 3개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공급기업은 화상회의, 재택근무 등 6개 분야 비대면 서비스 제공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기업들의 서비스 제공 능력, 전문가와 수요자의 평가 등을 통해 9월 중 최종 300개사 내외로 선정할 계획이다.

수요기업으로 선정되면 ‘K-비대면바우처 플랫폼’을 통해 공급기업이 매뉴얼식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4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8개월 이내에 이용할 수 있다. 채무 불이행, 국세·지방세 체납 등 지원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어떤 기업이라도 신청 가능하다.

수요기업이 공급기업의 서비스를 선택하게 되는 ‘K-비대면바우처 플랫폼’은 시범 테스트, 공급기업 선정 과정 등을 거쳐 9월 중에 개시할 예정이다.

김주화 중기부 비대면경제과장은 “중소기업의 경우 회사 경영사정, 시스템 미비 등을 이유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속에서도 재택근무 등 비대면 업무환경 구축에 어려움이 많다”며 “공급기업 선정, 바우처 플랫폼 구축 등을 조속히 완료해 중소기업이 신속히 비대면 업무환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다원 기자 leedw@

늘어난 추석 사전판매… 웃을 수만 없는 유통가

작년보다 물량 최대 50% 급증
코로나에 알바 고용 쉽지 않아
택배 늘리고 방역 교육 강화
배송박스 소독 감염 방지 총력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유통업계의 추석선물 세트 판매가 호조를 보이고 있다. 언택트가 일상화되며 가족이나 친지를 방문할 수 없는 이들이 서둘러 선물 구매에 나선 탓이다. 그러나 마냥 웃을 수만은 없다. 쿠팡과 마켓컬리, SSG닷컴 등 물류센터 직원이 연이어 확진되는 가운데 백화점과 대형마트 역시 불시에 확진자가 나오는 순간 배송 차질이 불가피하다.

6일 롯데백화점에 따르면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사전 예약 판매 신장률을 전년 대비 36%로 집계됐다. 한우와 갈

비 등 정육세트는 240% 올랐고, 굴비세트는 160% 신장했다. 청과 세트도 64% 많이 팔렸다. 신세계백화점의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3일까지 추석 선물 판매 역시 지난 추석에 비해 13.6% 늘었다. 이 영향으로 배송 건수도 작년에 비해 10% 가량 늘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보다 열흘 앞당겨 사전예판을 진행하고 있는 현대백화점의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2일까지 선물 세트 예약 판매는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무려 51%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정육(103.4%), 수산(56.9%), 청과(53.1%)를 찾는 고객이 많았다. 이마트도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3일까지 선물세트 사전예판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0% 늘었다.

유통업계의 명절 선물 판매가 역대급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에도 유통업계의 속내는 복잡하다. 최근 유통사의 물류센터에서 속속 확진자가 발생하는 탓에 불



뚱이 튀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통상 유통업체들은 명절 세트 주문 상단과 상하차 업무에 아르바이트 직원을 투입해 늘어난 물량에 대비해왔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여파에 선불리 고용에 나서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하루 200명에 넘는 확진자가 배출되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연장된 가운데 무증상 감염자도 있는 탓에 선불리 새로운 인력을 채용하기가 쉽지 않다.

자칫 배달 집중 기간에 확진자 발생으로

물류센터나 점포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닥치면 선물 배송 차질이 불가피하다.

각 기업들은 선물 포장 업무와 담당 직원에 대해 방역을 강화하는 한편 직접배송 대신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롯데백화점은 배송 센터에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비상용 센터를 확보할 계획이다.

신세계는 대면 배송 서비스의 위험을 덜고자 아예 직접 배송을 20% 가량 감축하고, 택배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배송

기사에게는 손소독제를 지급하고 방역교육도 실시한다.

현대백화점 역시 선물세트 포장시 KF94 마스크와 위생장갑 착용을 의무화하는가 하면, 포장된 배송박스를 일일이 소독하기로 했다. 또한, 고객과 배송기사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대면 배송 서비스'도 도입하기로 했다.

신선육 등을 일부 선물을 제외하고 대부분 택배를 이용하는 이마트는 직배달 인력에 대해서는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시키고, 손소독제 비치 등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호텔신라 역시 배송기사의 발열 체크와 마스크 착용, 손 세정 등 개인 방역을 확실히 한 후 배송을 시작한다. 아울러 고객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물을 받는 모든 고객에게 비대면으로 전달한다.

한 백화점 관계자는 "감염 예방에 따라 직배송과 택배 등을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남주현 기자 jooh@

“임금 동결·복지 축소” 허리띠 졸라맨 롯데쇼핑

실적악화에 특단 조치… 근속 포상도 금에서 상품권으로 대체
직원들 “30년 근속자 보너스 500만원 달받는 셈” 개편에 반발

코로나19 직격탄을 맞고 실적 악화에 직면한 롯데쇼핑이 임금 동결과 직원 복지 제도 개편에 나섰다. 롯데는 지난달 롯데지주가 노사 임금 동결 합의를 시작으로 각 계열사에서도 비용 절감을 위한 조치가 도입될 가능성이 제기돼왔다.

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황범석 롯데쇼핑 백화점사업부 대표는 최근 임직원에게 서신을 통해 임금 동결과 복지제도 변경을 시사했다. <본지 2020년 9월 1일자 2면 참조>

황 대표는 우선 임금 동결에 대해 임직원들의 이해를 구했다.

황 대표는 “올해 임금은 동결될 것”이라며 “좋은 실적으로 임금을 인상할 수 있었다면 바랄 게 없겠지만, 어려운 상황에 처한 만큼 임직원 이해 바란다”고 운을 뗐다.

복지 제도 개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복지제도 개편은 사실상 복지 축소가 골자다.

그는 “일부 복지제도를 변경할 예정”이라며 “금 시세가 가파르게 상승함에 따라 창립 근속 포상은 상품권으로 변경해 지급 수준을 낮추고, 그 재원을 ‘복지 포인트’로 활용하는 것으로 개편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롯데그룹 계열사 근속자 포상은 금이나 그에 준하는 상품권 지급으로 이뤄져 왔다. 롯데백화점도 매년 11월 15일 창립기념일에 맞춰 만 10년 이상

금 10돈부터 근속연수에 따라 만 40년 이상은 금 40돈을 지급해 왔다.

황 대표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이를 통해 창립 근속 포상을 △10년 100만 원 △15년 150만 원 △20년 200만 원 △25년 250만 원 △30년 300만 원 상품권으로 변경한다는 방침이다. 최근의 금 시세를 감안할 때 상품권 지급금액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롯데는 이에 대한 직원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매년 전 직원에게 지급될 복지 포인트를 추가로 내놓기로 했다. 복지포인트는 기본 110만 원에 근속과 고과를 감안해 최대 170만 원까지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에 대해 재계에서는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경영 환경이 악화된 롯데그룹이 ‘최후의 카드’를 꺼내는 것으로 해석한다.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롯데슈퍼 등을 운영하고 있는 롯데쇼핑의 상반기 영업이익(535억 원)은 전년 대비 82% 감소했다.

롯데마트는 5년간 50개 점포를 없애기로 한 계획에 따라 서울 구로점과 도봉점 운영을 종료해 지난 4일 공식 발표했다.

그룹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롯데지주 노사는 지난달 2020년 연봉 동결에 합의했다.

사측의 이 같은 결정에 직원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직원들은 임

금 동결보다 복지제도 개편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롯데백화점 임직원은 앞서 2017년에도 사드로 인한 실적 악화에 따라 임금 동결을 경험한 바 있다. 다만 근속 포상은 위기 상황에서도 지속돼왔다.

복지 개편에 따라 수령하는 금액이 크게 낮아지는 데서 직원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회사 개편안으로 복지제도가 개편되면, 최근 금 시세(1돈 27만8000원) 기준 10년 근속 직원이 받게 되는 금액은 약 278만 원(금 10돈)에서 100만 원(상품권)으로 약 178만 원 줄게 된다.

30년 근속 직원의 경우 834만 원(금 30돈)에서 300만 원(상품권)으로 실수령액이 500만 원 이상 차이가 난다. 복지 제도가 개편될 경우 당장 두 달 뒤인 11월 장기 근속 포상 대상자부터 금 대신 상품권을 지급받는다.

복지 제도 개편을 두고 내부 갈등도 심화하는 양상이다.

복지 제도 개편에 반대하는 한 직원은 “(복지 제도 개편은) 복지 축소 시작에 불과하다”며 “단순히 이번에 금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사측의 복지제도 개편을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10년차 이하 직원들 사이에서는 “복지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나눠서 다 같이 혜택 누리자는 건데 무조건 나쁜 건 아니다”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편, 롯데쇼핑은 임금 축소와 복지 개편에 대해 4일부터 15일까지 내부 인사시스템을 통해 직원 동의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6일 서울 홈플러스 강서점에서 모델이 '아이뮤즈 스토류 모니터'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제공 홈플러스

“듀얼 모니터로 ‘홈피스’ 꾸며보세요”

홈플러스, 9만 원대 24형 모니터 ‘아이뮤즈 스토류’ 출시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와 원격수업이 일상화된 ‘뉴노멀’ 시대가 됐다. 최근 수도권 중심의 재확산으로 인해 이 같은 상황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많은 직장인과 학생들은 가정 내 업무와 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홈피스(Home+Office)’, ‘홈스쿨(Home+School)’ 공간 구성에 나서고 있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24일부터 30일까지 24형, 27형 전제 모니터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5%, 39% 증가했으며 20만~30만 원대 가성비 상품인 ‘아이뮤즈 스토류 14 노트북’ 4종은 출시 후 현재까지 약 1만 대가 판매됐다고 6일 밝혔다.

이처럼 가정에서 업무 및 학습을 더욱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노트북, 듀얼 모니터 장만에 나선 소비자가 늘자 홈플러스는 겨냥해 9만 원대 24형 Full HD(FHD) 모니터 등 관련 가전을 저렴한 가격에 선보인다.

먼저 업무와 함께 학습, 각종 영상 콘텐츠 시청, 게임까지 폭넓게 쓸 수 있는 ‘아이뮤즈 스토류 FHD 모니터’ 2종(24/27형)을 새로 선보인다. 특히 이 상품은 소비자 부담을 덜기 위해 24형 9만9000원, 27형 14만9000원 등 가격으로 마련했다. (행사카드, 신한/마이홈플러스신한/삼성/홈플러스삼성 결제 시)

저렴한 가격에도 성능은 알차게 구성했다. 1920×1080 Full HD 해상도는 물론

75Hz 주사율과 8ms의 빠른 응답속도로 부드럽고 끊김 없는 화면을 송출한다.

또한 화면의 압박감을 제거해 눈의 피로감을 줄여주는 ‘플리커 프리’ 기능과 ‘블루라이트 차단’ 등의 기능으로 눈의 피로감을 줄여준다.

이 밖에도 모니터 뒷면에 베사홀이 있어 벽걸이나 모니터 암 장착이 가능하고 사용자 환경에 맞춰 상하 각도를 -5~15° 조절할 수 있는 틸트 기능도 갖추고 있다.

또한 홈플러스는 지난해 대형마트 단독으로 선보인 20만 원대 노트북 ‘아이뮤즈 스토류 14 아폴로’의 판매를 이어간다. 이는 인텔 아폴로 레이크(N3350) CPU, MS Office 평생 버전을 탑재한 14인치 노트북으로, 13.5mm의 얇은 두께와 1.35kg 초경량의 뛰어난 휴대성을 자랑한다. 이로 인해 업무나 학습용 가성비 노트북으로 각광받고 있다. 가격은 29만9000원이다. (행사카드, 신한/마이홈플러스신한/삼성/홈플러스삼성 결제 시)

조세종 홈플러스 대형가전팀 바이어는 “집에서도 사무실처럼 업무를 할 수 있는 듀얼 모니터 구성을 하려는 소비자들을 겨냥해 이번 신상품을 선보였다”며 “특히 수도권 중심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재택근무하는 직장인이 더욱 늘어나며 앞으로도 사무 관련 가전의 판매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갤러리아百, 남성 편집숍 ‘G494H’ 리뉴얼 오픈

갤러리아백화점이 명품관에 직영으로 운영 중인 최고급 남성 복합 편집숍 ‘G. STREET 494 HOMME’ (이하 G494H)를 7년 만에 리뉴얼 오픈했다고 6일 밝혔다.

갤러리아가 직접 운영하는 G494H는 이태리, 영국, 프랑스 등 럭셔리한 클래식 브랜드부터 트렌디한 디자이너 브랜드까지 감각적인 셀렉션으로 남성 토탈 패션을 선보이고 있다.

이번 리뉴얼을 통해 G494H 편집매장에서는 △VIP 룸 △하이주얼리&와치존 △

라이프스타일 팝업존 등을 신설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하이주얼리&워치존에서는 국내에서 볼 수 없었던 명품시계를 커스터마이징하는 위치 브랜드 매드 패리스(MAD PARIS)를 비롯해 국내에서 찾아보기 힘든 특별한 시계 브랜드들을 선보인다.

의류 외 라이프스타일 상품군을 상시 소개하는 팝업 공간을 마련, 고객들에게 신선함과 재미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리뉴얼 오픈에는 프리미엄 카메라 브랜드



‘라이카(LEICA)’ 팝업스토어를 국내 최초로 선보인다. 라이카 팝업 테마는 ‘FLY TO THE MEMORY, LEICA JOURNEY’로 갤러리아 독점 한정판 스페셜 굿즈도 소개할 예정이다.

남주현 기자 jooh@

신흥국 펀드 수난시대… 중국·북미 펀드는 ‘好好’

브라질 올해 수익률 -31%·베트남 -7%… 日·유럽도 ‘마이너스’

경기 회복세 빠른 中펀드 25.1% 수익… 북미 펀드도 17.83%

“장기급등 확산 어려워… 리스크 분산되는 글로벌 주식형 관심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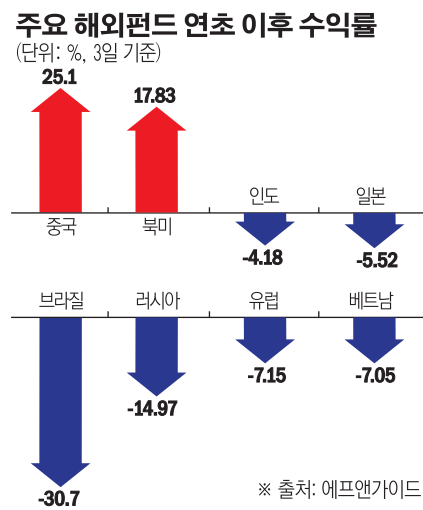
직장인 최 모(30) 씨는 펀드 계좌 잔고를 보면 걱정이 든다. 지난해 말 일몰 전 부랴부랴 가입한 비과세 해외주식형 펀드 때문이다. 지난 3일까지 15% 가까운 수익을 냈지만, 주말을 앞두고 조정을 받은 테슬라·애플 등이 추가 하락한다면 수익률이 뒷걸음질 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미 그는 베트남, 브라질 관련 펀드에서 큰 손실을 보고 있다.

해외주식 직구족(族)뿐 아니라 해외주식형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의 걱정이 늘었다.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MS), 넷플릭스, 테슬라 등 대형 기술주들의 주가가 천당과 지옥을 오가고 있기 때문이다

다. 유명 헤지펀드 운영자 빌 애크먼은 ‘블룸버그’ 텔레비전에 나와 “주가 상승이 끝났다는 신호는 분명 아니지만, 미국 역사상 아주 불확실한 시절이 다가오고 있다고 본다. 증시는 불확실성을 싫어한다”고 지적했다.

당장 펀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가운데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우려 속에서도 북미와 중국펀드 가입자들은 웃고 있다. 지난해 비과세 혜택 막차로 인기를 끌던 베트남 등 신흥국 펀드는 골치덩이가 됐다.

6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라



면 국내 설정된 171개 중국펀드의 연초 이후 평균 수익률은 25.10%(3일 기준)에 달했다. 같은 기간 북미 펀드의 평균 수익률은 17.83%를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국내 주식형 펀드(9.67%)는 물론 해외 주식형 펀드

(14.34%)의 수익률을 모두 웃도는 성적이다. 반면 일본펀드(-5.52%) 유럽(-7.15%), 인도(-4.18%), 베트남(-7.05%), 브라질(-30.70%) 등은 마이너스(-)를 나타내며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전종규 삼성증권 연구원은 “중국은 코로나19의 선행시장으로 세계 주요국가 중에서 경기회복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현재와 같은 ‘코로나 통제력’이 유지된다면 내년 상반기까지 펀더멘탈 개선 사이클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글로벌 증시의 주요 리스크였던 미·중 무역분쟁도 코로나 여파에 더 격화되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중국과 북미펀드에 긍정적 요소다. 크리스토퍼 스마트 베어링자산운용 수석 글로벌 전략가는 “단기 무역 합의의 효력이 여전히 유효하고, 계속 관계를 이어가겠다는 의지가 양국에 있어 보인다”며 “당분간 새로운 관세

부과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들 지역의 상승 폭이 높아 더 오를 여지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 2008년 해외펀드 대란 때도 우리 투자자들은 중국 증시의 폭지에서 펀드에 대해 가입했다가 큰 폭의 손실을 본 아픈 기억이 있다. 당시에 큰 인기를 누렸던 ‘미래에셋인사이트펀드’, ‘신한BNP파리바 봉쥬르차이나펀드’ 등의 해외펀드는 몇 해 전부터 겨우 살아났다. 펀드 자체로 나쁘지 않지만 이미 많은 투자자는 손실을 떠안고 환매를 했다.

미국 증시를 낙관하고 모두 넣는 것도 위험하다는 조언이다. 자산운용사 한 관계자는 “현시점에서 미국 증시 장기 급등을 확신하기는 어렵다”며 “굳이 현재 미국주가 상승을 바라보고만 있기 아깝다면 좀 더 리스크가 분산되는 글로벌 주식형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카카오게임즈’ 환급금 58兆, 다음 투자처는…

은행계좌 환불 신청 12%뿐

상당액 다시 공모주 청약으로

MMF·CMA 유입 가능성도

일부 증권사 유치 경쟁 나서

카카오게임즈 공모주 청약 이후 강남 큰손들과 동학 개미들은 어떤 투자처에 관심을 두고 있을까.

58조 원이란 뭉치돈 중 상당 규모가 은행 등 ‘제자리’로 돌아가지 않고 새로운 투자처를 찾아 헤메일 가능성이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최근 저금리와 부동산 규제 등으로 갈수록 투자처가 협소해지는 가운데 최근 시중 부동산 자금은 주식시장이나 금융권 단기성 주식 상품에 몰리고 있다. 당장 일부 증권사는 청약 환불금 유치 경쟁에 나섰다.

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청약이 마감된 카카오게임즈의 일반공모 배정물

량은 320만 주로, 768억 원어치다. 증권사들은 전체 청약 증거금 58조5543억 원 중 주식을 배정받지 못한 58조4775억 원을 4일 청약자 계좌로 환급했다.

그러나 환불금을 돌려받기 위한 계좌로 은행 계좌를 지정한 고객 비중은 12%(삼성증권 기준)에 불과했다. 환불금의 88%에 달하는 자금은 여전히 증권시장에 남아 다양한 투자를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시중 은행권 가계 신용대출 잔액은 128조9233억 원이다. 지난달 31일보다 4조6486억 원 늘어난 것으로 이중 상당액이 공모주 청약시장으로 유입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머니마켓펀드(MMF)나 종합자산관리계좌(CMA) 같은 단기 상품을 ‘정거장’으로 삼을 가능성도 있다.

환불금 지급 업무를 맡았던 한 증권사 PB는 “SK바이오팜 등 공모주 청약 이후 증시 주변에 쌓인 자금은 대부분 단기성

상품을 선호하고 있다”며 “자산을 오랜 기간 묶어둘 투자처가 마땅하지 않아 시중자금 부동화 현상이 날이 갈수록 두드러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격적 성향의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최근 주가가 급락했던 지역을 대상으로 한 해외 펀드에 단기 가입하려는 문의가 있다”고 전했다.

직접투자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B증권사 강남지점 부장(마스터PB)은 “장기 투자에 적합한 펀드보다 단기 대응이 가능한 투자 방식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우세하다”며 “이런 맥락에서 자문형 랩 상품 가입과 직접투자로 돌아서는 고객이 꽤 많다”고 말했다.

일부 PB들은 강남 부자들 사이에 인기를 끌었던 주가연계증권(ELS)·목표달성형·데마형 사모펀드를 다시 설정하려는 움직임에 바쁜 모습이다. 한국투자증권과 삼성증권, KB증권 등은 ‘어장’ 주변을 맴도는 물고기를 가두려 프로모션에 나섰다.

이신철 기자 camus16@

LG그룹, 올 시총 36兆 증가… SK ‘턱밑 추격’

‘배터리 1위’ LG화학이 끌고

‘61분기 흑자’ LG생건도 한몫

시총 124兆… 4대그룹 중 3위

LG그룹 상장사의 시가총액이 120조 원을 넘기며 SK그룹을 바짝 뒤쫓고 있다. 산업 지형이 바뀌면서 세계 최고의 ‘2차전지’를 품은 LG그룹의 몸값이 높아진 덕분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LG그룹 상장사 13곳의 시가총액 총합(우선주 포함)은 124조4127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말 기준 88조652억 원보다 36조3565억 원(41.3%) 증가한 규모다.

올 초까지만 해도 LG그룹의 시총 순위는 국내 4대 그룹 중 꼴찌였다. 그러나 코로나19 유행으로 LG그룹 소속 상장사들의 미래 성장성이 재평가되며 몸집이 급격히 불어났다. 현재 LG그룹은 현대차그룹(12개사·98조3088억 원)과의 격차를 20조 원 넘게 벌리며 상장사 시총 규모 3위로 올라선 상태다. 2위인 SK그룹(20개사·139조3827억 원)과의 격차도 작년 말 42조 원에서 15조 원가량으로 좁혀졌다. SK

4대 그룹 상장사 시가총액 현황

(단위: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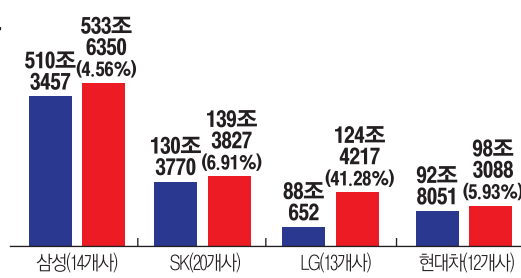
■ 작년 말 ■ 현재

※ 9월 4일 기준, 우선주 포함

※ SK그룹 작년 말 19개사(SK바이오팜 미포함)

※ 괄호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

※ 출처: 한국거래소



바이오팜(시총 15조 원)이 없었다면 추월도 가능했다.

LG그룹 성장세를 이끈 일등공신은 단연 LG화학이다. LG화학은 작년 말 대비 시가총액이 134.0% 증가한 52조4501억 원으로 집계됐다. 세계 주요국들이 코로나19 경제 충격을 버티기 위해 ‘그린 뉴딜’(친환경 경기부양책)을 추진하면서 성장 중인 전기차 토양에 ‘거름’을 부었다. LG화학은 지난 3월 월별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 글로벌 1위에 처음 오른 뒤 지난달까지 5개월 연속 1위를 유지하고 있다.

김정현 교보증권 연구원은 “LG화학이 1위에 오른 배경은 테슬라 모델 3(중국), 르노 조에 등 LG화학 주요 고객사의 전기차 판매량이 많이 증가했기 때문”이라며 “하반기부터는 LG화학이 배터리 셀을 독

점적으로 공급 중인 폭스바겐의 ‘ID3’가 출하되기 때문에 LG화학 독주의 단기가 시성은 매우 높다”고 짚었다.

61분기 연속 흑자를 낸 LG생활건강은 튼튼한 실적으로 그룹의 뒤를 받쳤다. LG생활건강 시총은 작년 말보다 15.2% 불어난 22조6932억 원이다. LG전자는 언택트(비대면·Untact) 문화 확산으로 인한 TV 등 가전 수요 증가로 주가가 힘을 받고 있다. 시총도 작년 말보다 16.5% 불어난 13조7464억 원으로 집계됐다.

김수현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그동안 내관에 치우쳤던 자동차 사업에서 LG전자의 ‘ZKW’ 인수는 외관으로 확장하는 계기가 됐다”며 “LG이노텍도 전기차 부품 상용화에 가세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신철 기자 camus16@



‘BTS 아버지’ 방시혁

상장 땀 주식부호 몇 위?

빅히트 주식 1238만주

지분가치 1.7兆로 14위

‘파상’ 달성 땀 4.3兆

정몽구 회장 넘어 5위에

기업공개(IPO)를 앞둔 방탄소년단(BTS)의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이하 빅히트)의 최대주주인 방시혁(사진) 빅히트 대표의 지분가치가 주목받고 있다.

빅히트 상장 첫날 방 대표의 지분 규모는 최대 4조3444억원까지 늘어나 5위권에 오를 가능성이 언급된다. 6일 빅히트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방 대표의 빅히트 주식 1237만7337주(지난 2일 기준)를 갖고 있다. 지분율은 43.44%다.

빅히트가 공모가 희망 가격 밴드 중 상단인 13만5000원으로 상장될 경우 방 대표의 지분가치는 1조6709억 원에 이른다.

현재 연예인 주식 부자 1위인 박진영 JYP엔터테인먼트 창업자(2566억 원)와 2위인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창업자(1707억 원) 등 상장사 주식을 100억 원 이상 보유한 연예인 주식 부자 7명의 전체 주식 재산

(7100억 원)의 약 2.4배에 달한다.

전체 상장사로 범위를 넓혀봐도 방 대표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각각 1조5980억 원)을 앞서 전체 순위 14위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여기에 최근 기업공개 열풍이 가세한다면, 방 대표의 순위를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 빅히트의 공모가가 13만5000원으로 정해진 상태에서 SK바이오팜처럼 ‘파상(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로 결정된 후 상장 첫날 상한가)’을 달성하면, 빅히트 상장 첫날 방 대표의 지분 규모는 4조3444억 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이렇게 된다면 방 대표가 현재 5위인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약 4조2000억 원)을 넘어 5위에 이름을 올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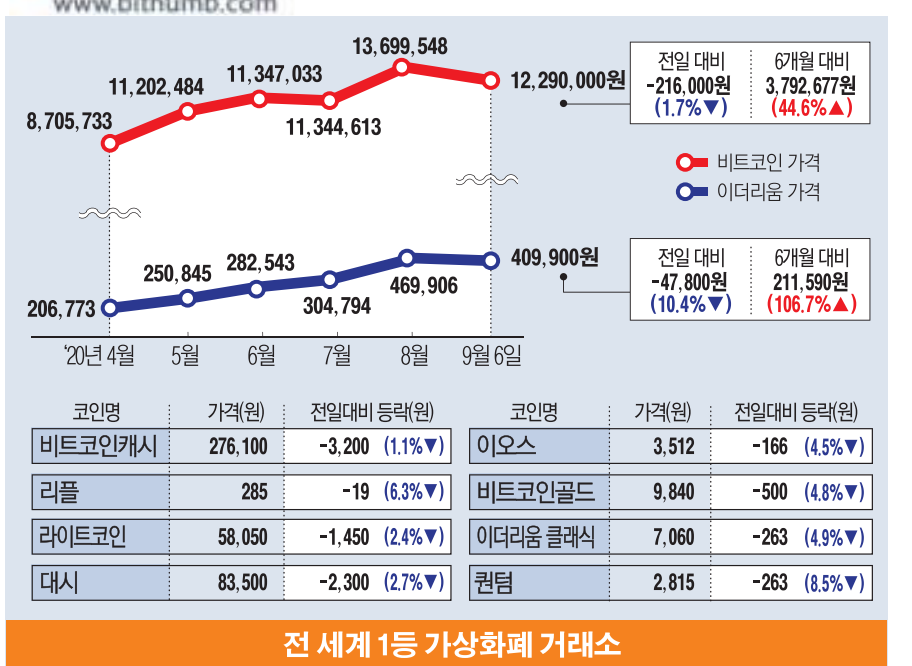
재벌닷컴 상장사 주식부호 순위에 따르면 1위부터 4위는 이견희 삼성전자 회장(약 17조 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약 7조 원),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약 5조 3000억 원),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약 5조 원)이다.

빅히트는 이달 24~25일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하고, 다음 달 5~6일 청약을 거쳐 10월 중 코스피 시장에 상장될 예정이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빗썸 지수 (2020년 9월 6일 17:00, KST)



보증금 오르고 전세매물 줄어...더 불안한 가을철 이사

헬리오시티 전세물건 보름새 89% ↓
84㎡ 보증금은 2억~3억 경중 뛰어
“임대차법 시행後 매물 자취 감춰”

서울 아파트 매매 소폭 증가 ‘숨통’
매매가 0.1% 상승...급등세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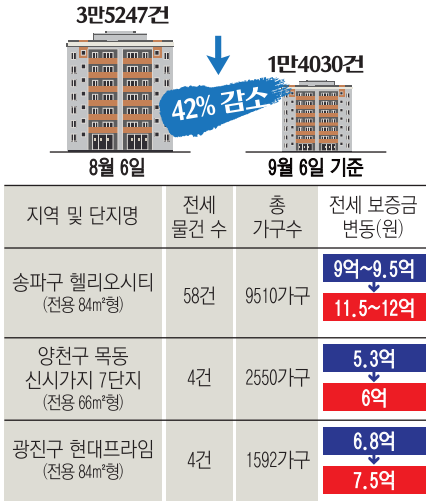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서울 아파트 시장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 아파트 매매 물건은 이달 들어 소폭 증가세로 전환됐지만, 전세 물건은 여전히 찾기 어렵다. 임대차 3법 통과 이후부터 계속된 전세 실종이 연말까지 계속되면 가을 전세대란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9510가구 헬리오시티, 전세는 단 58건...한 달 새 보증금 ‘억 단위’ ↑ = 서울 아파트 전세 물건은 7월 임대차 3법 통과를 기점으로 자취를 감췄다. 6일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 전세 물건은 총 58건이다. 헬리오시티는 총 가구수가 9510가구에 달하는 대단지로 지난달 20일 전세 물건 591건과 비교하면 약 89% 감소한 수치다.

서울 전체로 범위를 넓혀도 전세 물건

서울 전세 물건 현황

※ 전세 보증금 변동(실거래가(8월) → 호가(9월))



※출처: '아파트실거래가' 앱, 국토부 실거래가

감소세는 뚜렷하다. 양천구에 있는 2550가구 규모 목동 신시가지 7단지 아파트는 이날 기준으로 전세 물건은 단 4건이다. 1592가구 규모 광진구 현대프라임 아파트 역시 전세 물건은 4건에 불과했다. 정부가 지난달 21일부터 부동산 허위매물 단속에 나서면서 중복매물이 대거 내려간 것을 고려해도 전세 물건 급감세가 가파르다.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물건은 1만 4030건으로 지난달 31일 1만4733건을 기록한 이후 줄곧 내림세다. 이날 전세 물건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서울에서 전세난 우려가 커지고 있는 6일 송파구 한 부동산중개업소의 매물 정보란이 비어있다.

연합뉴스

은 2만514건으로 한 달 전인 지난달 6일(3만5247건)에 비해 약 42% 줄었다.

전세 물건이 자취를 감추자 전셋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송파구 헬리오시티 전용 84㎡형은 지난달 보증금 9억~9억5000만 원에 거래됐지만, 이날 기준 호가는 11억 5000만~12억 원에 형성돼 있다. 헬리오시티 인근 H 공인 관계자는 “임대차법 시행 이후 임차인들이 안 나가고 2년 더 살려 하면서 물건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7단지 전용 66㎡형(2층)은 지난달 보증금 5억3000만 원에 거래됐지만, 이날 기준으로 같은 층 호가는 7000만 원 오른 6억 원이다. 광진구

현대프라임 전용 84㎡형 역시 지난달 보증금 6억8000만 원에 거래됐지만, 이달 기준으로 약 7000만 원 오른 7억5000만 원에 호가가 형성됐다.

◇가을 이사철 앞두고 매매 물건 소폭 ↑ = 전세 물건은 여전히 품귀현상이 계속되지만, 매매 물건은 숨통이 트이는 모양새다. 이날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물건은 4만2879건으로 지난달 30일 4만1852건보다 2.4%(1027건) 증가했다.

서울 25개 구 가운데 도봉구(8.5%)와 구로구(6.5%), 양천구(6.5%), 송파구(6.0%), 노원구(5.4%), 금천구(5.3%)가 상승했다. 반면, 성동구(-

2.7%)와 광진구(-1.3%), 강동구(-1.0%), 강남구(-0.1%)는 감소했다.

매매 물건 증가와 함께 매매 가격 급등세도 둔화됐다. 부동산114가 발표한 4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주보다 0.1% 상승했다. 이는 지난달 말 0.11% 상승한 이후 0.01%포인트(P) 하락한 수치다.

윤지해 부동산 114 수석연구원은 “매매 거래와 전월세 거래가 크게 줄어들고 있다”며 “거래가 줄고 시장에 물건이 많이 쏟아진다면 앞으로 하락 전환 가능성이 크지만, 현재 시장은 거래가 줄어들고 물건은 더 부족한 현상이 지속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저렴한 분양가 ‘지분적립형 주택’

SH 주택 보유세 깎아준다

‘땀질식’ 증세 보완책 도마위

정부가 지분적립형 주택을 짓는 공기업에 주택 보유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에 따르면 SH공사와 서울시,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는 지분적립형 주택 관련 최근 세제 개편 논의를 시작했다. 지분적립형 주택을 짓고 장기간 이를 보유한 공기업에 보유세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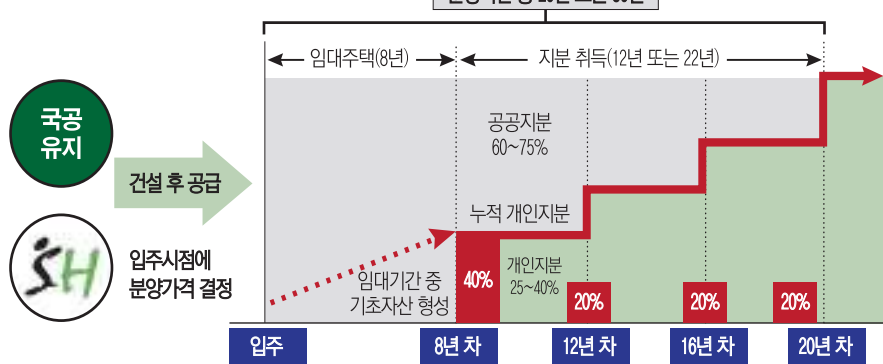
지분적립형 주택은 분양 시점에선 입주 예정자에게 주택 지분 일부를 이전하고 이후 거주 기간에 따라 지분을 추가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저렴한 분양가로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면서도 투기성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지난달 도입이 결정됐

다. 지분 적립형 주택에선 매각 차이도 공기업 등 사업자와 민간 입주자가 지분에 따라 나누기 때문이다. 서울시와 SH공사 등은 2027년까지 서울 시내에 지분적립형 주택 1만7000가구규모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제는 세금이다. 지분적립형 주택에선 취득세와 보유세 등 주택 관련 세금도 지분 비율대로 사업자와 입주자가 나뉘는데다. 공기업으로선 입주자에게로 지분이 100% 이전되기 전까지 장기간 세금 부담이 발생한다.

서울을 따져보면 실질적인 세금 부담은 입주자보다는 법인인 공기업에 더 크다. 정부가 7월 발표한 ‘주택 시장 안정 보완 대책(7·10 대책)’에서 법인에 부과되는 주택 취득세율을 최고 세율인 12%까지 올

지분 적립형 주택 사업 구조



리고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 보유 법인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도 최고 세율(6%)을 적용해 부과하기로 했다. 법인엔 개인과 달리 6억 원 종부세 기본 공제나 세 부담 증가 상한제도 적용받지 않는다.

이 같은 증세 기조에서 공기업이 지분 일부라도 아파트 단지 전체를 장기간 보유하면 재무 상태에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다. 현재 지분적립형 주택 시범사업지로 유력한 서울 노원구 하계동 ‘하계5단지’만 해도 2000가구 규모로 20년에 걸쳐 지분

을 이전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일각에선 이 같은 세제 개편이 ‘땀질’ 정책이라고 비판한다. 지분적립형 주택 도입 같은 특수한 사업을 고려하지 않고 법인에 대한 증세를 서두르다 보니 곳곳에서 빈틈이 나오고 있어서다. 7·10 대책이 발표된 후 법인 부동산 증세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정부는 건설임대사업자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주택협동조합, 리츠 등은 증세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종화 기자 pbell@

공공재개발 20곳 관심 주민들 적극 사업 주도

부자동네 외면 ‘공공재건축’

▶1면서 계속

개포우성7차뿐 아니라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등 강남권 주요 재건축 추진 단지들도 이미 공공재건축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 불참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공공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과감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끌릴 만한 제안을 해야 하는데 정부가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안전진단 요건 완화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등 파격적 제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공재건축 사업과 달리 공공재개발 사업은 활기를 띠고 있다. 현재 공식적으로 공공재개발 참여 의향서를 제출한 곳은 △동작구 흑석동 흑석2구역 △성북구 성북동 성북1구역 △영등포구 양평동 양평14구역 등 3곳이며 설명회가 진행되거나 예정된 곳은 총 12곳이다. 이곳 외에도 현재 관심을 보이는 곳은 1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공공재개발 사업 대상지의 경우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을 주도하고 있다. 신월7동 주민의 경우 ‘공공재개발 연합회’를 발족, 자체적으로 현수막을 내걸고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있다. 앞서 신길1구역도 공공재개발 추진위원회를 세우고 사업 추진에 나섰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부터 공공재개발 시범 사업지 선정을 위한 공모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당초 이번 주 중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일정이 다소 지연됐다. SH공사 관계자는 “공공재개발에 대한 인센티브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면서 관심을 갖는 지역이 늘고 있다”면서 “당장 결정한 것은 아니나 주민들이 먼저 문의를 하는 등 긍정적 반응이다”라고 말했다.

금주의 분양캘린더

9월 둘째 주엔 전국에서 4800가구 가까운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분양시장에 나온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주 전국에서 10개 단지, 4791가구(일반분양 3341가구)가 공급된다. 경기 평택시 고덕면 ‘힐스테이트 고덕 스카이스티’와 대구 서구 원대동3가 ‘서대구센트럴자이’, 경북 경산시 하양읍 ‘경산아양 금호어울림’ 등에서 청약 신청을 받는다.

13개 단지에서 청약 당첨자를 발표한 다. 서울 양천구 신월동 ‘신목동 파라곤’과 경기 화성시 반월동 ‘신동탄 롯데캐슬 나노시티’, 대구 수성구 지산동 ‘더샵 수성라크에르’ 등에서 청약 당락이 갈린다.

정당계약을 받는 단지는 16곳이다. 서울 은평구 수색동 ‘DMC 아트포레 자이’와 ‘DMC 파인시티 자이’·중산동 ‘DMC 센트럴 자이’, 대구 북구 고성동1가 ‘대구 오페라 스위트’ 등에서 정당계약을 진행한다.

4개 단지에선 이번 주 견본주택 문을 연다. 경기 안양시 비산동 안양비산 한신 더휴’ 등이 11일 견본주택을 개관한다.

날짜	구분	시	구시군	읍면동	아파트명
9/7 (월)	접수	강원 충북	강릉시	포남동	KTX강릉역동도센트리움 2순위
			진천군	광혜원면	진천광혜원2(영구임대) (~9/11)
	계약	서울	은평구	수색동	DMC아트포레자이 (~9/11)
				중산동	DMC파인시티자이 (~9/11)
			경기	평택시	고덕면 e편한세상지제역 (~9/11)
			부산	연제구	연산동 연제SK뷰센트럴 (~9/9)
9/8 (화)	접수	울산	남구	신정동	문수로드림파크 1순위
				신정동	문수로드림파크 1순위
	발표	강원	강릉시	포남동	KTX강릉역동도센트리움 ♠
			진천군	광혜원면	진천광혜원2(국민임대) (~9/11)
			경기	수원시	이의동 e편한세상시티광교 (~9/9) ♣
			경북	경산시	하양읍 경산아양금호어울림(공공분양) 1순위
9/9 (수)	접수	경북	경산시	하양읍	경산아양금호어울림(공공분양) 1순위
			경남	남해군	남해읍 남해스타펠리스 1순위
	발표	서울	양천구	신월동	신목동파라곤
				신월동	신목동파라곤
			경기	양주시	옥정동 양주옥정3차노블랜드에듀포레
			대구	수성구	지산동 더샵수성라크에르
9/10 (목)	계약	강원	강릉시	포남동	KTX강릉역동도센트리움 (~9/11) ♠
			진천군	광혜원면	진천광혜원2(국민임대) (~9/11) ♣
	발표	경기	안양시	비산동	안양비산한신더휴
				비산동	안양비산한신더휴
			대구	수성구	중동 수성푸르지오리버센트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타워트엠엘크루
9/11 (금)	접수	경기	가평군	가평읍	가평센트럴파크더스카이 1순위
			부산	사하구	괴정동 괴정신동아파밀리에 1순위
	발표	강원	강릉시	포남동	KTX강릉역동도센트리움
			진천군	광혜원면	진천광혜원2(국민임대) (~9/11)
			경기	안양시	비산동 안양비산한신더휴
			대구	수성구	중동 수성푸르지오리버센트

날짜	구분	시	구시군	읍면동	아파트명
9/8 (화)	계약	대구	북구	고성동1가	대구오페라스위첸 (~9/14)
			광주	동구	산수동 무등산명지로드힐 (~9/10)
	접수	울산	남구	아음동	더샵명성센트로 (~9/10)
				신정동	힐스테이트고덕스카이스티 2순위
			경기	평택시	고덕면 힐스테이트고덕스카이스티 2순위
			대구	서구	원대동3가 서대구센트럴자이 2순위
9/9 (수)	접수	울산	남구	신정동	문수로드림파크 2순위
				신정동	문수로드림파크 2순위
	발표	경북	경산시	하양읍	경산아양금호어울림(공공분양) 2순위
			경남	남해군	남해읍 남해스타펠리스 2순위
			서울	양천구	신월동 신목동파라곤
			경기	양주시	옥정동 양주옥정3차노블랜드에듀포레
9/10 (목)	계약	강원	강릉시	포남동	KTX강릉역동도센트리움 (~9/11) ♠
			진천군	광혜원면	진천광혜원2(국민임대) (~9/11) ♣
	발표	경기	안양시	비산동	안양비산한신더휴
				비산동	안양비산한신더휴
			대구	수성구	중동 수성푸르지오리버센트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타워트엠엘크루
9/11 (금)	접수	경기	가평군	가평읍	가평센트럴파크더스카이 1순위
			부산	사하구	괴정동 괴정신동아파밀리에 1순위
	발표	강원	강릉시	포남동	KTX강릉역동도센트리움
			진천군	광혜원면	진천광혜원2(국민임대) (~9/11)
			경기	안양시	비산동 안양비산한신더휴
			대구	수성구	중동 수성푸르지오리버센트

(주1)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주2) 1순위 청약접수 및 견본주택 개관 단지는 색으로 표시

(주3) 오픈 단지는 사업진행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자료: 부동산114

“경기도시공사 ‘에콘힐’ 출자금 반환 의무 없어”

이흥구 대법관 내일 취임
文 대통령 임명 10명으로

대법 “2.4조 사업 무산, 시행사 책임… 보증금 350억만 변제”

광고 에콘힐 사업 무산으로 수천억 원 손실을 본 컨소시엄 참여 회사들이 출자금 등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사실상 패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7월 대우건설 등이 경기도시공사를 상대로 낸 출자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산업은행-대우건설 컨소시엄은 2008년 광교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특별계획구역6 우선협약자로 선정돼 경기도시공사와 예정 총 사업비 2조4000억 원 규모의 사업 추진 협약을 체결했다.

해당 컨소시엄은 특수목적법인 에콘힐을 설립하고 자기자본 2430억여 원에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으로 6000억여 원, 영업 활동으로 1조6000억여 원 등을 조달하기로 했다. 그러나 2013년 6월 컨소시엄이 대출금 3700억 원을 갚지 못하면서 사업이 무산됐다.

대우건설, 롯데건설, 두산건설, 한라, 코오롱글로벌, 쌍용건설, 현대백화점 등 컨소시엄 참여사들은 출자금 1734억여 원 중 자신들이 낸 906억여 원을 돌려달라며 2013년 8월 소송을 제기했다. 총 사업비의 5%에 해당하는 협약이행보증금(1000억 원)을 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도 법원에 맡겼다.

재판에서는 사업 무산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컨소시엄 측은 경기도시공사가 사업지구 내에 다른 백화점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또 6차례 중대한 변화가 있어 계약을 수정할 의무가 있었으나 협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사업 무산의 책임이 컨소시엄에 있다고 보고 경기도시공사가 출자금을 반환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백화점 입점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백화점 입점을 금지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협약이행보증금도 컨소시엄이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다만 책임을 60%로 감액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경기도시공사가 정책적 목표를 정해 사업 방향을 정하고 통제 권한이 있는 등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데 사업 실패 책임과 손해를 컨소시엄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취지다.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협약이행보증금의 산정 방식을 변경하고 컨소시엄의 책임을 55%로 낮췄다.

2심 재판부가 산정한 컨소시엄의 협약이행보증금 총액(1072억 원) 중 소송을 제기한 대우건설 등의 보증금은 780억 원 수준이다. 재판부는 이 중 55%만 대우건설 등의 책임을 인정하고 나머지 350억여 원에 대한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정수천 기자 int1000@

오후 5시에 제공하는 유료정보서비스
이 기사는 channel FIVE에 게재됐습니다



‘마이삭’ 복구도 못했는데…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빠르게 북상 중인 6일 9호 태풍 ‘마이삭’ 때 피해를 입은 부산 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깨진 창문에 합판을 대는 등 강한 바람에 대비하고 있다.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빠르게 북상 중인 6일 9호 태풍 ‘마이삭’ 때 피해를 입은 부산 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깨진 창문에 합판을 대는 등 강한 바람에 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태풍 ‘하이선’ 오늘 최근접… 강풍에 시설물 주의

제10호 태풍 ‘하이선’ 북상으로 전국이 태풍 영향권에 들면서 비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6일 기상청에 따르면 하이선은 7일 오전 9시께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부산 남동쪽 80km 해상까지 근접한 뒤 동해안을 따라 북상할 전망이다.

하이선은 사람과 큰 돌까지 날아갈 수준의 위력을 가진 ‘매우 강’ 상태이다. 다만 부산에 인접하면 ‘강’으로 변할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는 7일 오전부터 8일 오전까지 태풍의 본격적인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된다. 하이선은 부산 인근 해상을 지나 북진해 8일 오전 3시쯤 중국 청진에 상륙할 것으로 예보됐다.

하이선 북쪽의 비구름대 영향으로 5일부터 제주도와 경상도, 전남 남해안에 비가 내렸다. 7일 오후부터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된다.

태풍의 이동 경로와 가장 가까운 경상도, 강원 영동, 울릉도·독도는 100~300mm(강원 영동, 경북 동해안, 경북 북동 산지 많은 곳 최대 400mm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내릴 예정이다.

강한 바람에 시설물 관리에도 주의할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바람에 날아갈 위험이 있는 지붕이나 간판 등은 미리 결박하고 창문은 틈새 없도록 창틀에 단단하게 테이프 등으로 고정해야 한다.

특히 올해 역대 최장기간 장마가 이어지며 지반이 약해진 상태로 하이선으로 인한 추가 토사 유실이나 산사태 피해도 우려된다.

하이선 북상으로 경북 각급 학교는 학사일정을 조정했다. 경북도내 유치원 초·중·고교 587곳은 원격수업을 시행한다. 52곳은 등·하교 시간을 조정하고 23곳은 휴교했다. 김충용 기자 deep@



신격호의
도전과 꿈

롯데월드와 타워

오쿠노 쇼 지음

“온 가족이 함께 즐겁게 지낼 행복한 공간을 만들고 싶다.”

소공동 롯데타운, 세계 최초의 대형 실내 테마파크인 잠실 롯데월드, 그리고 오늘날 서울의 랜드마크가 된 123층 초고층 빌딩 롯데월드타워에는 ‘온 가족이 모두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한 신격호 회장의 평생의 꿈이 녹아 있다. 신격호 회장과 50년을 함께한 일본인 건축가 오쿠노 쇼를 통해 본 인간 신격호 이야기.

‘신격호 회장이 맨해튼 한복판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담판 나선 사연은?’
무모하리만치 과감했던 신격호 회장이 만들어 낸 롯데월드의 도전,
저자 오쿠노 쇼의 건축사무소에 잠들어 있던 미공개 계획안들을 통해 밝혀진 그의 꿈.

신격호 회장의 구상을 담은 도면과 이미지 400여 장 마침내 공개!

양장본 | 윌커리 | 국배판 변형 | 값 35,000원

Tel. 031-955-4601
www.nanam.net

남
nanam



이혼위자료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해도 양도세 내야

생활 속 세금

성격차이로 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이 아닌 이혼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한다면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될까. 아니면 대가를 받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기 때문에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 또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대표가 어느 날 갑자기 사망하게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금의 조달과 사용에 대한 증빙을 갖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본다. /편집자 주



다주택자, 배우자에 명의 이전 땀 납세 대상 공동명의 재산, 이혼으로 분할한다면 비과세

사례 1 ◇이혼위자료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일까요?=서울에서 아파트 2채와 상가 등 여러 개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최갑씨는 지난 해 아내와 이혼하면서 아이들을 아내가 부양하는 조건으로 아파트 1채와 상가의 소유권을 아내 명의로 이전해 주었다.

이 과정에서 최씨는 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넘겨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았다. 그런데 1년이 지난 후 세무서로부터 약 2억원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 고지서가 발부된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이에 최씨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니 소유권이전 등기원인이 '이혼위자료 지급'의 경우 아파트와 상가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되기 때문에 세금이 나온다는 말을 듣고 또 다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최씨의 경우처럼 대가를 받지 않고 소유

권이 이전되었는데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일까.

국세청에 따르면 등기원인이 '이혼위자료 지급'인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는 것은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전하여 주는 부동산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

다만, 이전하여 주는 부동산이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때에는 등기원인을 위와 같이 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또 등기원인이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 이전'인 경우 민법 제839조의 2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해 부동산

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하여 이혼자 일반이 당초 취득 시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 받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않는다.

최씨의 경우처럼 이혼으로 인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등기원인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에 차이가 있으므로 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속·증여세 부과제척,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5년
미등기로 양도세 포탈, 10년 넘기기 전에 세금내야

사례 3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부동산 투자로 적잖은 재미를 본 김부동 씨는 강남에 대형 아파트와 상가건물 등을 소유하고 있는 말 그대로 '알부자'이다.

그런 그가 최근 00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5000만 원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는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니 6년 전에 등기하지 않고 토지를 양도한 것이 문제가 된 것으로 판단했다.

김 씨는 5년이 지나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무서에서는 세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하니 도통 납득하기 힘들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세법에서는 일정한 기간 안에서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또는 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받은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허위신고 또는 누락 신

고한 경우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15년간 부과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10년간이 부과제척 기간이다. 또 상속세 및 증여세 이외의 세금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받은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10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다.

아울러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 기한의 다음 날부터 7년간, 부정한 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인 경우에는 10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간이 국세부과 제척기간이다.

따라서 김 씨의 경우는 미등기로 양도해 양도소득세를 포탈했으므로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6월 1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김면수 기자 tearand76@

대표이사가 회사와 자금 빌려 주고 받을 경우 자금 조달·사용 증빙 부실 땀 세금절감 어려워

사례 2 ◇법인과 금전거래 할 경우...자금 사용처 증빙은 '절세 지름길' =인천에서 작은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강규호 대표는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울 때마다 개인적으로 사채 등을 빌려 일시적으로 사용한 후 변제해 왔다.

그러던 중 강 대표가 심장마비로 갑자기 사망하게 되었고, 유족들은 사망 당시 강 대표가 소유하고 있던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를 신고하고 세금까지 납부했다.

그런데 얼마 후 세무서에서 상속세 조사를 하면서 강 대표가 사망하기 전 2년 이내에 회사에 자금을 빌려주었다가 회수한 금액의 합계액에서 회사에 빌려 준 금액의 합계액을 차감한 순 가수금 반제금액이 약 7억원에 달하므로 회수한 자금의 사용처를 소명해야 한다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런 경우처럼 사실상 상속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인가.

국세청에 따르면 상속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해 소유재산을 처분해 상속인들에게 미리 분배하거나 현금 등 세무관서에서 포착하기 어려운 자산형태로 전환하여 상속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위 사례의 경우 강 대표가 회사에 자금

을 빌려준 것은 채권이 발생한 것이 되고, 자금을 회수(회사에서는 대표이사가 수금을 반제한 것으로 처리)한 것은 자산(채권)을 처분한 것으로 된다. 따라서, 회사에서 가수금을 반제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그 금액의 사용처를 밝혀야 상속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다.

통상 중소기업의 경우 회사의 자금이 부족하면 대표이사가 일시적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쓴 후 나중에 갚곤 하는데, 회사의 회계담당자나 가족은 어디에서 자금을 빌려다 쓰고 갚았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위 사례와 같이 대표이사가 갑자기 사망하게 되면 사용처를 밝힐 수 없으므로 꼼꼼없이 상속세를 물어야 한다.

뿐만 아니다. 법원에서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면 대표이사 임직에서는 부채가 발생한 것이 되므로, 이 또한 가지급금 합계액이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이면 사용처를 밝혀야 한다.

만일,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면 가수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가 과세된다.

실제로 재산을 상속받지도 못했는데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여 여객의 상속세를 물게 되면 얼마나 억울하겠는가?

따라서 이처럼 억울한 세금을 물지 않기 위해서는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과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평소 자금의 조달과 사용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갖추어 놓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다.

KB 금융그룹

국민의 평생 금융 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신혼부부

노년부부

우리아이

직장인

KB손해보험

KB생명보험

KB건강보험

KB차내보험

KB충신보험

그랑드아트섬의 일요일 오후

조르주 파토르 쇼라

국민, 좋아요 ♥

보험, 좋아요 ♥

KB손해보험 | KB생명보험

LOVE YOURSELF 프로젝트

바쁜 일상 때문에

정작 자신을 챙기지 못하는 국민 여러분-

KB손해보험과 KB생명보험이

[나를 위한 LOVE YOURSELF 프로젝트]로

배심없이 챙겨드릴게요!

꼭 필요한 보장만 모아 빈틈없이 통합관리해주는 보험

보험은 역시 KB입니다

KB손해보험

아이의 미래, 더 밝아질 수 있도록

KB 자녀보험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할 수 있도록

KB 건강보험

소중한 내차, 더 안전할 수 있도록

KB 자동차보험

보험금 청구를 쉽고 빠르게

KB 간편청구서비스

KB생명보험

나와 내 가족, 더 안심할 수 있도록

KB 종신보험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기본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 체결 시 보험인수가 기일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장사고 외에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한 경우 ②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한 경우 ③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한 경우 *보험계약 전, 자세한 상품내용과 계약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보험업의 심의필 제18649호(2019.07.08) *주식·증권·채권·기타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보험 *고객센터 1544-0114 *생명보험업의 심의필 제2019-02195호 (2019-07-09) *주식·증권·채권·기타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보험 *고객센터 1588-9922

KB손해보험 | KB생명보험

BIG

BANG

Class가 다른 상위 0.1%를 위한 브랜드 - 뱅

고반발 클럽 설계 기술과 경량화 기술은 이미 타사와 **초격차의 기술 우위** 에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1st Shot 세계 최고 고반발 드라이버 + 2nd Shot 세계 최고 고반발 우드 + 3rd Shot 세계 유일한 고반발 아이언 = 100_{yd} 증가

PAR 5 3rd shot 까지 합계

뱅크골프클럽으로 **100_{yd}** 더나가도록

세계적인 프로들이

도와드립니다!

클럽구매 선택에서부터 클럽스펙수정, 필드 레슨까지

최대의 비거리를 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그 골퍼에게 **최적화된 스펙의 클럽**이 필요합니다
레슨실력과 첨단 과학적 프로그램으로 스윙분석을 잘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골프 클럽 지식까지 겸비한 세계 BEST 100프로가 클럽을 만들어 드립니다

김주미 (LPGA 1승, KLPGA 3승, KLPGA대상/최우수선수상/신인상/최저타수상 4관왕, JTBC골프, SBS골프 방송), 김혜윤(KLPGA 5승, SBS골프아카데미방송, KLPGA K10클럽 수상), 박소영 (KLPGA 3승, 국가대표 코치), 송보배 (LPGA1승, JLPGA 2승, KLPGA 5승, LET 1승, KLPGA대상/상금왕/신인상/최저타수상 4관왕, JTBC골프 방송), 송경서 (JTBC골프 해설위원/라이브레슨 방송), 양제윤 (KLPGA 2승, KLPGA 대상), 이병윤 (JTBC골프 라이브레슨, 수원여대 골프교수), 이지영 (LPGA 1승, KLPGA 2승), 이현 (JTBC골프 라이브레슨, 경찰대/경성대 골프교수), 염동훈 (KPGA 최우수지도자상, 주니어선수/투어프로 코치 선호도1위), 장활영 (SBS골프/JTBC골프 중계, 한국골프대/가천대 골프교수), 조영란 (KLPGA 2승), 최우리 (KLPGA 1승, KLPGA 최우수선수상, SBS골프/MBC 방송), 허석호 (KPGA 2승, JGTO 8승, KPGA대상, 골프다이제스트 선정 베스트 교습가 1위, SBS골프아카데미 방송), 문현희 (KLPGA 2승, 인하대 스포츠심리학 박사수료, SBS골프 및 JTBC레슨 방송), 이정연 (KLPGA 1승, KLPGA 신인상, 우수선수상,한국골프대학 교수, SBS골프 레슨방송, LPGA 9H 최저타수 28타), 이승호 (KPGA 6승, JGTO 신인상), 김나리 (JLPGA 2승), 신준 (미 PGA Certified Professional, JTBC 골프 레슨 방송, JTBC 골프 해설위원)

세계 어느 기업도 도전하지 않고 따라 하기도 힘든
최적화 기술을 실현 시키고 있습니다

- 드라이버를 100m밖에 못 보내는 분도 쉽게 스윙 할 수 있는 타사 대비 30% 더 가벼운 무게의 클럽부터 400m장타자가 사용하는 무거운 클럽까지
- 아주 부드러운 R6강도의 샤프트로 된 클럽부터 3X강도의 강한 샤프트로 된 클럽까지

999,000가지 스펙중에서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클럽을
PGA 정상급 프로가 사용하는 클럽을 제작해주는 시스템 그 이상으로 VIP 고객의 클럽을 만들어 드립니다

최적화된 뱅골프 클럽으로 100대 프로의 필드 레슨 신청 접수중 | 국내 최고 수준의 실력있는 프로,피터, 골프 클럽 전문가 모집중



“제주 한 달 살기, 4명 선발에 10만명 몰렸죠”

제주맥주 제주마케팅 전략·기획 파트 윤상진 과장

‘유유자적’ ‘일하면서’ 2명씩...일상이 여행 되는 경험 선사
브랜드 알리기 넘어 고객 소통·지역사회에 긍정적 영향력

제주맥주는 지난 7월 브랜드 경험 신규 웹사이트 오픈하고 특별한 이벤트를 마련했다. 소비자를 대상으로 제주 한 달 살기를 지원키로 한 것이다. 항공권과 제주에 체류하는 동안 숙소, 렌터카, 방역용품까지 지원해주는 ‘제주맥주, 한 달 살기’는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됐다. 웹사이트는 오픈 15일만에 60만 명이 방문했고 200만 페이지뷰를 달성했다. 제주살기에 도전한 이들만 10만 명에 이른다.

제주맥주의 특별한 이벤트를 기획한 이는 제주맥주 마케팅실 제주마케팅 전략·기획 파트 윤상진 과장(33·사진)이다. 이번 이벤트는 제주와 제주맥주를 동시에 알릴 수 있는 무언가를 고민한 끝에 탄생했다.

“소비자에게 매일이 여행이 되는, 제주맥주라는 브랜드가 전달하고 싶은 여유와 라이프스타일을 만끽하게 하고 싶었어요.”

윤 과장은 언택트 시대 여행이 자류롭지 않은 요즘 여행과 여유를 함께 선사하는 동시에 제주맥주라는 브랜드의 정체성을 알리고자 이벤트를 기획하게 됐다고 설명한다.

제주 한 달 살기는 한 달 동안 힐링하며 제주살이를 하는 ‘유유자적 한 달 살기’와

제주맥주 양조장에서 근무하며 지내는 ‘일하면서 한 달 살기’ 두 가지 콘셉트에 따라 지원을 받았다. 10만 명의 지원자 중 콘셉트별로 각 2명씩 총 4명 만이 한 달 살기 대상으로 선정됐다. 최종 선발인원들은 지난 달 17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제주에서 생활한다. 한 달간의 여정의 3분의 2를 소화한 지금 선발인원들의 만족감이 높은 것도 윤 과장에게는 보람이다.

이벤트 기획자로 나름의 고충도 있었다. 특별한 사연을 가진 지원자가 많았고 10만 건의 지원서 중 선정 대상을 선별해 지원서를 읽고 또 읽기를 반복했다. 발표 일정을 맞추기 위해 동료들까지 그의 업무를 도왔을 정도다.

그는 고심 끝에 △일하면서 한달 살기에 오영은(24)·정은(26) 자매가, △유유자적 한 달 살기에 장금례(여·58), 김도연(남·34)씨가 각각 선정됐다. 오영은·정은 자매는 유학을 준비하다 코로나19로 무산되는데 취업마저 어려워진 상황에서 인턴십 경험을 위해 사연을 접수했다. 공방장애와 우울증을 겪고 있던 장금례씨는 딸이 대신 접수해 선발됐다. 김도연씨는 코로나19로 무급휴직이 장기화하자 독립 출판을 위해 책을 집필할 목적으로 제주행을 택했



다.

윤 과장은 기존 여행 이벤트와 제주살기는 다른 형태라고 강조한다.

“사람들이 꿈에 그리던 일상을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제주 한 달 살기에요. 여행자 라는 기분으로 관광지를 찾아다니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제주에서 하루하루를 살며 매일 특별한 하루를 만들 수 있는데 초점을 맞추거죠.”

그는 이번 한 달 살기가 제주맥주와 닮았다고 말한다.

“맥주는 술 중에서도 일상과 정말 맞아있는 주종이라고 자부합니다. 제주맥주

와 함께하면 일상도 곧 여행이 될 수 있다는 평범하지만 특별함을 선사하고 싶었던 것이 한 달 살기로 이어졌지요.”

그는 제주맥주만의 문화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끌어올린 원천이라고 자부한다. 소비자들에게 경험을 선사할 때 구매패 이어지는 사례를 입사 후 종종 목격했다. 물론 주류 마케팅에 따라붙은 다양한 제약을 피하기 위한 방편일 수도 있다. 그러나 기존 주류기업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특별한 소통방법임을 부인할 순 없다.

그는 제주맥주 입사 4년차로 제주맥주 론칭 초기부터 합류한 인물이다. 그는 제주맥주를 ‘소비자와 함께 커나가는 브랜드’라고 말한다. 소비자와 함께 성장하기에 소비자에게 무언가 돌려줄 것을 고민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그다. 창업진흥원과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의 도움을 받아 ‘한 달 살기’를 시작할 때만해도 이번 이벤트가 소비자를 넘어 지역사회까지 영향을 미칠지 상상하지 못했다.

“한 달 살기 숙소를 지원한 숙박업소에 문의가 빗발치고 한 달 살기에 참여한 이들이 방문하는 식당이나 카페가 제주의 또 다른 명소로 자리매김했으니 회사와 지역, 소비자가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이벤트가 됐죠.”

소통을 중시하는 제주맥주는 스타트업으로 시작한 수제맥주 브랜드로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올 상반기 매출 148억 원을 돌파하며 수제맥주 주요 기업으로 도약하는데 성공했다.

유현희 기자 yhh1209@

김광현 ‘신장경색’ 부상자명단에
7일 등판 취소...시즌마감 우려도

메이저리그서 호투를 펼치던 김광현(사진)이 부상자 명단에 올랐다.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MLB.com은 김광현(32·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이 5일(이하 한국시각) 오른쪽 복부에 통증을 느껴 시카고의 한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고 전했다. 김광현은 신장경색 진단을 받았고 통증이 완화될 때까지 입원해 있다가 6일 퇴원했다.

김광현은 7일 컵스와 원정경기에 선발 등판할 예정이었지만, 10일짜리 부상자명단에 오르면서 등판이 불발됐다.

존 모젤리악 세인트루이스 야구 운영 부문 사장은 김광현의 시즌 마감에 대한 우려를 일축했다. 모젤리악 사장은 “과거에도 김광현이 신장 질환을 겪은 적이 있다. 지난해 12월 김광현과 계약하기 전에 이런 사실을 알았다”고 밝혔다. 이어 “좋은 소식은 김광현의 상태가 나아졌고, 올 시즌 내에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라며 “일주일 동안 김광현의 상태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기정아 기자 jjonga1006@

메시, 결국 바르사에 남기로
“법적 분쟁 벌이고 싶지 않아”

20년간 몸담은 스페인 프로축구 FC바르셀로나를 떠나겠다고 폭탄 선언했던 리오넬 메시(33·사진)가 결국 팀에 남기로 했다.



메시는 5일(한국시간) 축구 전문 매체 골닷컴과 인터뷰에서 “바르셀로나에 남을 것이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클럽과 법적 분쟁을 벌이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메시는 지난달 26일 구단에 이적 요청서를 공식 제출했다. 구단과 계약서에는 시즌 종료 시점인 올해 6월 10일까지 메시가 계약을 일방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다. 코로나19 여파로 시즌이 늦게 끝났기 때문에 해당 조항을 지금 적용해도 유효하다는 메시의 주장과 달리, 바르셀로나는 기한이 지났으니 메시가 바르셀로나 소속이라고 주장했다. 그를 영입하려는 구단은 바이아웃 금액 7억유로(약 9천863억 원)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측의 이견을 좁히지 못한 가운데 결국 잔류를 선택한 메시는 “소송을 거는 방법이 있지만, 바르셀로나는 나에게 모든 걸 줬고, 나 역시 그랬다”며 “구단과 법정까지 갈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부음

▲명노봉 씨 별세, 명희재·선재(현대자동차 품질본부 차장) 씨 부친상, 안태석(KB증권 어드바이저리 부장) 씨 장인상, 나하나 씨 시부상 = 6일, 충북대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8일 오전 7시, 043-269-7213

▲염태국(서여가·전 대한지적공사완주출장소장) 씨 별세, 엄기순·기숙(유니온랩 약사)·상현(동아일보 출판국 콘텐츠비즈니스 차장)·미라·미영(클루제주철성점 대표)·상욱(이지원 대표) 씨 부친상, 이태환(전택암종교교사)·민경직(경일한의원 원장)·김호일(인포뱅크 전무)·이동남(제주 유니타이트 경영지원실 부장) 씨 장인상, 김미순·조미경 씨 시부상 = 5일, 전북대병원 장례식장 2층 2호실, 발인 7일 오전 10시, 063-250-2442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토마스 클라인 대표 선임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토마스 클라인 메르세데스-벤츠 중동 대표이사 사장이 내년 1월 1일부로 신임 대표이사 사장에 임명된다고 6일 밝혔다.



토마스 클라인 신임 대표이사 사장은 2003년부터는 베를린에 있는 독일 영업조직(MBVD)에서 다임러의 경영 부문 인재 양성 프로그램인 커리어(CAReer) 프로그램에 참여, 2013년까지 독일 마인프랑켄 지역의 승용 부문 영업 및 서비스를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했다. 이어 2014년부터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메르세데스-벤츠 직영 유통망 승용 부문의 매니징 디렉터를 지냈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독일 본사 해외 지역 총괄 조직에서 지역 내 영업 및 주요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중책도 역임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디아지오코리아 사장에 댄 해밀턴
20년 한국인 대표이사 시대 마감

한국 주류 시장 변장에 20여 년 가까이 한국인 대표이사를 선임해 오던 디아지오코리아가 영업환경이 악화되면서 한국인 대표 시대를 마감했다.



디아지오코리아는 새 대표이사 사장으로서 댄 해밀턴 전 디아지오 북유럽 사장을 선임한다고 6일 밝혔다. 댄 해밀턴 신임 대표이사는 호주 태생으로 2011년에 입사, 인도, 중국, 일본, 유럽 시장을 거쳐 다양한 조직을 경영해 온 주류시장 전문가다. 일본에서 2016~2019년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스카치위스키와 기네스 맥주를 성공시켰다.

김혜지 기자 heyj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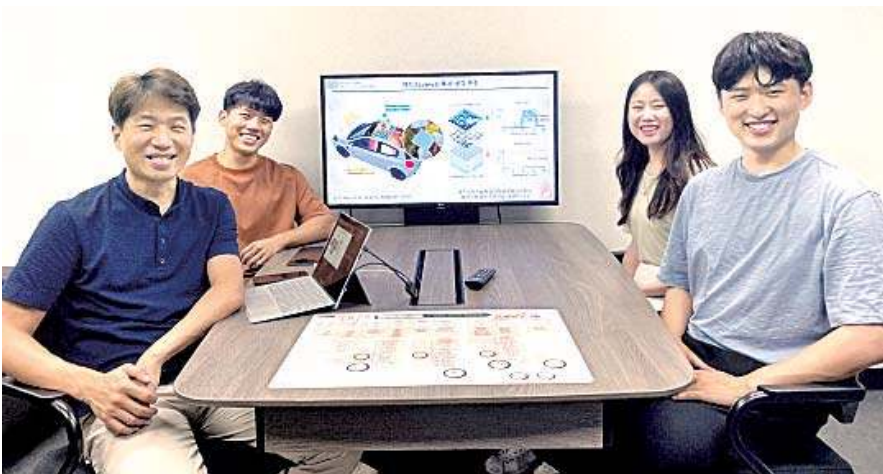
‘찜통차’ 온도 낮출 친환경 소재 구조체 개발

광주과학기술원 송영민 교수팀
폴리머·은·석영 다층패널 제작
43℃인 차량 내부온도 39℃로

‘찜통차’처럼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극단적 열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됐다.

한국연구재단은 송영민 광주과학기술원 전기전자컴퓨터공학과 교수 연구팀이 외부 전원 없이 밀폐된 공간의 온도를 낮춰줄 친환경 소재 구조체를 개발했다고 6일 밝혔다. 쾌적한 실내온도 유지를 위한 차량 지붕용 소재뿐 아니라 전자기기의 발열을 막을 방열소자, 냉방에너지 절약을 위한 건축물 시공 등에 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송영민 연구팀이 개발한 구조체는 폴리머(PDMS), 은(Ag), 석영(SO2)으로 된 두께 500 μm 정도의 다층패널이다. 태양광을 강하게 반사하는 금속은을 기준으로 위-아랫면의 복사 특성을 분리했다. 아랫면은 밀폐된 공간에서 열을 흡수하고 윗



밀폐된 공간에서 온실효과로 과열되는 고온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는 친환경 소재를 개발한 광주과학기술원 연구팀. 왼쪽부터 송영민 교수, 통합과정 이길주·허세연·김도현 연구원.

사진제공 광주과학기술원

면을 통해 방출시킨다.

연구팀은 로마신화에 나오는 두 얼굴의 신, 야누스의 이름을 따 ‘야누스 복사 냉각기’로 명명했다. 차량모사 환경에서 효과를 측정한 결과 차량 내부의 온도가 43℃에서 39℃로 4℃ 가량 낮아졌다. 기존 수동복사냉각 소재가 표면만 냉각시키는 반면, 야누스 복사 냉각기는 차량 내부의 온

도를 낮추는 데 성공했다.

송 교수는 “야누스 복사 냉각 소재가 실용화되면 대기와 태양에 노출되는 자동차·건물 표면·옥외 조형물 등에 응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작게는 웨어러블 전자소자나 초소형 전자소자의 냉각 소재로도 병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소은 기자 gogumee@

인사

◆감사원 ◇3급 승진 △산업·금융감사국 제3과장 정영채 △전략감사단 제1과장 권태경 △지방행정감사2국 대구사무소장 김건유

◆행정안전부 ◇부이사관 승진 △감사담당관 김정훈 △혁신행정담당관 박형배 △행정한류담당관 고웅조 △수습지원과장 박성식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전보 △산업기술융합정책관 장영진 △KOTRA의 국인투자지원센터 김상모

◆농림축산식품부 ◇과장급 전보 △규

제개혁법무담당관 강민철 △식품산업진흥과장 임영조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장 이용직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장 허경민

◆방송통신위원회 ◇과장급 전보 △이용자보호과장 이소라

◆금융위원회 ◇과장급 전보 △금융안정지원단 총괄정책과장 이진수 △금융안정지원단 금융지원과장 신장수 △금융안정지원단 산업지원팀장 전수환 △금융그룹감독혁신단 지배구조팀장 박진애

◆특허청 ◇부이사관 전보 △산업재산조사과장 정기현 △산업디자인심사팀장 최대순 ◇과장급 전보 △청장 비서관 정일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운·물류연구본부 해운정책연구실장 부연구위원 고병욱 △해운·물류연구본부 해운빅데이터연구센터장 부연구위원 이호준

◆한겨레신문 △인재개발부 인사·교육팀장 황선민

◆이데일리 △논설위원실장 양승득

◆경인일보 △편집국장 겸 디지털미디어센터장 김학석 △편집국 편집부 편집위원 오민영 △ “ 지역사회부장 홍운호 △ “ 디지털뉴스부장 이경태 △ “ 교열부 부장 김신태 △디지털미디어센터 총괄부장 박상일 △편집국 편집부장 박종훈 △경영마케팅본부 특집부(경기북부) 부장 정행욱



트럼프가 구상하는 제조업 초강국, 지난 7년 8개월간 아베와 손발을 맞춘 스가가 내건 디지털청, 시진핑이 강조한 데이터 경제 등은 제조가 IT를 끌어들이는 ‘인더스트리 4.0’과 IT가 제조를 끌고 가는 ‘인터넷 4.0’을 심화한 실천 전략이다. DX는 다시 말해 제4차 산업혁명의 개정·증보판이라 할 수 있다.

한국판 뉴딜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X)

11월 3일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재선을 노리는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에 도전하는 민주당의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막판 승부가 치열하다. 모든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10% 안팎으로 밀리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필살의 역전카드를 경제에서 뽑아 들었다. 그는 지난달 27일 백악관에서 한 대통령 후보 지명 수락연설 중 “(재선된다면) 단 3년 내에 세계사상 가장 강한 경제를 다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위해 중국에서 미국으로 고용을 되돌린 기업에 세제우대 조치 등을 신설하여 “앞으로 4년간 미국을 제조업 초강국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지난달 28일 사임을 발표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후임으로 유력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최우선 과제로 정부 조직 내에 ‘디지털청(廳)’ 신설을 들고 나왔다. ‘IT(정보기술) 후진국’이란 불명예를 벗고, 이번 코로나19 대응을 지연시킨 주 원인으로 꼽힌 낙후된 디지털 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청’

을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14일 실시하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하는 스가 관방장관이 6일 닛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이다. 그간 IT 행정은 내각부와 경제산업성, 총무성 등으로 나뉘어 국가의 중요 사안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4일 중국 베이징에서는 세계 148개 국가·지역이 참가하는 ‘중국 국제 서비스무역 교역회’가 열렸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TV 연설에서 “중국은 대외 개방을 계속하면서 양질의 서비스 수입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교역회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중국에서 처음 열린 대형 국제상업 이벤트다. 분야는 차세대 이동통신 ‘5G’와 로봇, 금융 등 다양했다. 중국 정부는 다른 나라들보다 일찍이 코로나19를 봉쇄했다는 점을 겹쳐 중국 시장의 존재감을 과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시 주석은 “중국은 각국과 함께 거시경제정책에서의 협조를 심화하고 그 바탕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와 데이터 경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미·중·일 3국의 사례를 보면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된다. 첫 번째는 정치·경제의 격변기에 국가 지도자들의 국정 주도 능력이 급격히 떨어졌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정권 후반으로 들어오면서 목표를 잃고 시야도 편협하게 되어 버렸다. 장기 집권하고 있는 시 주석도 예외는 아니다. 두 번째는 미·중·일 모두 정치·사회적 사건에 함몰되어 코로나19 경제불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경제를 잃으면서 민심이 돌아선 것이다. 트럼프는 인종문제, 아베는 측근비리와 인사전횡, 시진핑은 홍콩 탄압 등에 발목이 잡혔다. 세 번째는 이러한 추락정국의 탈출 대책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X)을 들고 나왔다는 점이다. DX는 인공지능(AI), 자동화,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의 활용이 몰고 오는 새로운 가치와 변혁을 말한다. 트럼프가 구상하는 제조업 초강국, 지난 7년 8개월간 아베와 손발을 맞춘 스가가 내건 디지털청, 시진핑이 강조한 데이터 경제 등은 제조가 IT를 끌어들이는 ‘인더스트리 4.0’과 IT가

제조를 끌고 가는 ‘인터넷 4.0’을 심화한 실천 전략이다. DX는 다시 말해 제4차 산업혁명의 개정·증보판이라 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1일 2021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며 ‘코로나 극복 선도국가’를 기치로 내걸었다. 이에 따라 예산 편성 기본방향을 코로나 방역을 토대로 한 빠르고 강한 경제 반등,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는 뉴딜 투자, 국민이 체감(體感)할 수 있는 국정 성과로 잡았다. 그 핵심인 한국판 뉴딜(디지털·그린 뉴딜)은 산업·환경·연구개발(R&D) 등의 분야에서 총 66조8000억 원을 배정받았다. 이는 2020년의 56조9000억 원에서 11.7%가 늘어난 것이다. 문재인 정부 역시 임기 후반으로 가면서 지지율이 낮아지고 있다. 여러 정책 분야에서 전략성과 집중도가 떨어지고 있다. 관료와 기업들의 피로감도 커졌다.

문재인 정부는 작금의 흐트러진 국정 분위기를 쇄신해 집권 후반기 정책을 다듬어 나가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한국판 뉴딜을 DX전략과 결합해 신경제 체제로의 전환을 꾀할 절호의 기회다.



한국 인구 5000만 명 중 100세 이상이 5000명이나 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다. 청동기 시대인 4000년 전 인간의 평균 수명은 겨우 18세였고, 2000년 전인 서기 1세기경 로마제국 남자의 평균 수명은 약 22세였다. 1~2세기 전만 해도 30~40세였던 평균 수명이 두 배인 70~80세로 늘어난 것은 100년도 채 안 된다. 한국의 경우 1900년대 조선인의 평균 수명은 20대 중반 이상, 1930년대엔 30대 중반 이후로 알려졌다. 당시에 환갑잔치를 거창하게 벌인 이유다.

세계적으로 한국인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지구인의 수명이 급격하게 늘었다. 인간의 수명이 획기적으로 증가한 배경에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인 생명유지 방법, 즉 소독제가 있다. 과학사상 가장 불운한 사람 중 한 명으로 알려지는 켈렘바이스(1818~1865)가 소독제의 중요성을 주장했다는데, 이 글에선 그의 이름을 거론하

인류 생명을 가장 많이 구한 ‘소독제’

는 것으로 그치겠다.

각종 질병의 치료에서 수술의 중요성은 말할 필요가 없다. 마취제의 등장으로 많은 사람들을 외과적 수술의 고통에서 구했는데 이와 연계하여 빠뜨릴 수 없는 게 있다. 마취제 덕분에 수술은 용이해졌지만 수술 후의 경과가 좋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다. 수술 후 회복을 기다리던 환자들의 수술 부위가 끓으면서 열이 나고 통증이 생기는 등 여러 증상이 나타나다가 결국엔 의식을 잃고 사망하는 패혈증 때문이다. 일단 패혈증이 일어나면 죽음을 의미하므로 수술에 임하는 의사나 환자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다.

올해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하자 마스크를 쓰는 것은 물론 손 씻기가 강조되고 있다. 손은 외부 환경과 직접 접촉하면서 다양한 세균과 바이러스에 노출된다. 세균과 바이러스는 손을 통해 주로 옮는데, 제대로 손을 씻으면 손에 묻은 세균의 99.8%가 사라진다. 또한 손 씻기는 독감을 포함한 호흡기 질환을 21%까지 감소시켜주고, 기타 감염질환을 50~70% 예방해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자들은 이처럼 단순한 소독이 인류의 생명을 가장 많이 구한 일등공신이라고 말한다. 무균, 즉 살균처리라는 매우 간단한데도 질병 역사에서 상당히 후대에 접목되었는데 아이러니가 있다. 소독제는 세균을 죽이거나 성장을 막는 물질이다. 현재 많은 환자들의 생명을 적시적소에서 구하고 있는 항생제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지만, 보다 많은 사람을 구하고 있는 소독제에 대해서는 다소 무지한 것은 사실이다. 항생제는 박테리아만을 죽이는 데 반해 소독제는 박테리아를 포함하여 곰팡이, 바이러스 등과 같은 여러 세균을 동시에 죽인다는 차이가 있다. 또한 항생제는 온몸에 퍼져 있는 세균을 주사나 약으로 죽이지만, 소독제는 간단히 손을 씻거나 상처 또는 수술 부위에 발라 효과를 낸다.

인간의 피부는 매우 단단한 보호 장벽이므로 세균을 직접 피부에 발라도 대개의 경우 병이 일어나지는 않는다. 세균이 피부 장벽을 넘어 인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간단치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무리

철용성과 같은 피부라도 상처가 나면 애기가 달라진다. 상처로 피부에 틈이 벌어지면 이 사이로 세균이 얼마든지 침입할 수 있다.

현대 병원에서는 이를 위해 두 가지를 병행한다. 소독과 멸균이다. 소독은 살아 있는 미생물을 제거하는 물리화학적 절차이며, 멸균은 살아 있는 미생물뿐 아니라 아포(포자)까지 제거하는 보다 더 적극적인 방식이다. 예를 들어 주사 맞기 전에 알코올 솜으로 피부를 닦는 것은 소독이며 수술용 메스를 고온고압기에 넣고 끓이는 것은 멸균이다. 20세기 초 영국과 독일에 서 개발된 무균처리법은 박테리아를 소독하는 살균법과 달리 완전한 무균 상태에서 치료하는 것이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 대유행으로 변신지도 9개월이 넘었다. 백신이나 치료제의 개발이 아직 요원한 상황에서 마스크 못지않게 손 씻기와 소독제 사용 등의 위생수칙이 강조되는 것은 순쉬운 방법으로도 우리 몸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투데이, 말투데이

☆ 엘리자베스 1세 명언
“나는 영국과 결혼했다.”
후진국이었던 잉글랜드와 아일랜드 왕국을 44년간 다스려 잉글랜드를 세계 최대 제국으로 만든 여왕. 본명은 엘리자베스 튜더. 평생 독신이어서 ‘처녀 여왕(The Virgin Queen)’으로 불렸다. 여왕의 독신주의는 모친과 계모가 아버지에게 의해 죽임을 당한 데서 받은 충격, 그녀에게 최초로 청혼한 시모어 제독이 정부의 허가 없이 공주에게 청혼했다는 죄목으로 처형당한 게 크게 영향을 끼쳤다. 오늘은 그가 태어난 날. 1533~1603.

☆ 고사성어 / 불가이위(不可而爲)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시도하다’라는 뜻. 공자(孔子)의 제자 자로(子路)가 만난 문지기의 “어디서 온 사람이냐?”라는 질문에 “공자의 문하생”이라고 하자 그가 한 말. “안 되는 줄 뻔히 알면서도 무엇이든 해보려고 하는 사람 말이지요[是知其不可而爲之者與].” 출전 논어(論語) 헌문(憲問)편.

☆ 시사상식 / 디커플링(decoupling)
통상 국가 경제는 연관이 많은 주변 국가나 세계 경제의 흐름과 비슷하게 흘러가는 동조화를 보이는데, 이와 달리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현상, 즉 탈동조화(脫同調化)를 말한다. 최근 한국이 비핵화 진전과는 상관없이 남북관계에만 집중하면, 한미간 디커플링이 심화해질 거라는 지적이 나온다.

☆ 우리말 유래 / 봉창(封窓)
창틀이나 창살 없이 토벽에 구멍을 뚫고 종이만 발라 놓아 채광만 하는 창. 밖에서 부르니 잠결에 봉창을 문인 줄 알고 열려고 더듬거리는 행위를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라고 한다. 관계없는 탄소리를 불쑥 내놓을 때 쓴다.

☆ 유머 / 꿈에서도
청년이 짝사랑하는 여자 꿈을 꿔다. 이윽고 결혼에 성공해 신혼여행을 갔다. 첫날 밤 땀만 뻘뻘 흘리다 꿈에서 깨어난 청년이 아쉬워하며 한 말. “키스부터 할걸!”
채집/정리: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 삶 연구소장



밥그릇 지키기

를 판매한 만큼 돈을 번다. 2000만 원짜리 차를 한 대 팔면 약 100만 원이 사원에게 주어진다고 한다. 이 중 30%가량은 대리점주에게 돌아가고, 나머지 70%의 일부도 선팅이나 블랙박스 등 고객 서비스를 위해 지출해야 한다. 판매 건수가 수익에 비례하는 만큼,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줄이기도 어렵다. 대리점에 소속된 사원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했고, 처음으로 단체행동에 나설 수 있는 쟁의권까지 확보했다.

최근 ‘밥그릇’이라는 단어가 뉴스에 자주 오르내렸다. 의사들이 정부 의료정책에 반발하며 단체행동에 나서자 ‘밥그릇 지키기’라는 비난이, 임금교섭에 나선 자동차

업계 노조를 향해서도 “저러다 밥그릇이 깨져봐야 정신 차린다”는 비판이 나왔다.

밥그릇을 중요하게 생각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개인의 성취, 사회생활, 사명감 등 일을 하는 이유는 복합적이다. 그중에서도 ‘경제적 이익’은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이유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는 무언가를 더 요구하려는 목소리 자체를 ‘밥그릇 싸움’으로 깎아내리며 비난하는 경향이 있다. 요구가 타당한지 살펴며 논의할 기회는 사라져버린다. 영업사원들을 향해서도 ‘밥그릇 지키기’를 떠들썩할 수 있겠다. 하지만 비난 이전에 그들의 상황을 먼저 들여다볼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소비자가 받는 ‘더 많은 혜택’은 누군가가 손해를 감수했기에 가능한 결과물이다.

트럼프의 힘

데스크칼럼

배수경

국제경제부장



신고가 행진을 거듭하던 미국 증시가 갑자기 고꾸라지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멘붕에 빠졌을 거다. 특히 한국에서 동학개미운동을 하다가 성에 안 차 애플·테슬라 같은 미국 블루칩에 거액을 넣은 서학개미라면 더더욱 그럴 거다. 하지만 백만장자가 되기를 꿈꾸며 코로나19 팬데믹 와중에 받은 실업급여까지 톡톡 털어 개인연금저축에 쏟아부은 미국인들만 할까.

증시가 갑자기 크게 요동치자 미국 언론들은 ‘401k’ 투자 관련 기사들을 쏟아내며 불안한 가입자들의 심리를 다독이고 있다. 401k란, 미국 근로자퇴직소득보장법 401조 제k항에 의거한 미국의 개인퇴직연금저축제도다. 매달 일정액의 퇴직금을 회사가 근로자 계좌로 넣어주면 근로자가 이를 직접 운용하는 방식이다. 자기 퇴직금은 자기가 책임지라는 것이다.

미국 월급쟁이들 사이에서는 ‘지금까지 발명된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며, 가장 손쉽게 돈을 모을 수 있는 축복’이라며 ‘401k로 백만장자 되기’ 노하우와 성공담이 쏟아진다. 무엇보다 401k는 금수저를 물고 나온 일부 계층을 위한 게 아니라, 평범한 급여 근로소득자들을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아메리칸 드림’의 결정판으로 평가된다.

이 401k에 대한 미국인들의 믿음은 절대적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일시 혹은 영구 실직자 신세가 됐어도 개인퇴직연금계좌(IRA) 저축을 거르기는커녕 오히려 더 늘렸으니 말이다. 최근 피델리티인베스트먼트가 분기별 IRA 저축 동향을 분석한 결과, 2분기 IRA 평균 신고는 11만1500

달러(약 1억3300만 원)로 1분기보다 13%나 늘었다. 코로나19에 따른 불확실성과 섰다운, 5500만 명 이상의 미국인이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IRA 저축을 막지는 못했다는 의미다. 기업들도 401k 매칭자금(급여의 3~6%)을 성실하게 납부했다. 중앙은행과 의회가 전례 없는 규모의 경제 지원을 단행하면서 경제에 대한 낙관론이 확산하고, 1분기 폭락했던 주식시장이 회복 궤도에 오른 덕분이다.

401k 인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증시가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면서 401k 수익률도 꽤 짝짤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 속에서도 미래에 대비하려면 현금 자산이 최고라는 인식이 강하게 뿌리박힌 것이다. 현재 부(富)의 사다리도 부동산에만 목매는 한국과는 사뭇 다른 풍경이다.

이제 바로 도널드 트럼프의 힘이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약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코로나19 백신 사용이 임박해 경기 회복 기대감도 커지는데, 주식시장까지 강세장을 이어간다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더 나아가 ‘미국을 계속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

리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그동안 지지율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에 밀리던 트럼프의 뒷심은 무섭다. 한동안 여론조사에서 바이든에 처지던 트럼프는 최근 무섭게 치고 올라오며 지지율 격차를 좁히고 있다.

이는 2016년 당시를 떠올리게 한다. 선거 직전까지 각종 지지율 조사에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에게 밀리던 트럼프는 세 차례의 TV 토론 후 여론조사에서 모두 완패하고도 결국 백악관을 차지했다. 이는 ‘승자독식제’를 취하는 미국 선거공학이 작용한 것이지만, 사실은 유권자들이 그만큼 ‘실리’를 중요시한다는 것을 반영한다. 줄곧 침묵하던 ‘사이 트럼프(숨은 트럼프 지지자)’들이 마지막에 선거의 판을 뒤집은 것이다. ‘미국을 계속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트럼프의 재선 공약 앞에서 ‘미국을 다시 존중받게’ 만들겠다는 바이든의 공약이 초라해 보이는 이유다.

트럼프가 재집권한다면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는 집권 1기 때보다 더욱 혹독하고 이기적이 될 수 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각종 다자간 틀을 한층 더 무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해외 주둔 미군 감축, 방위비 부담금 증액 요구, 관세·무역 전쟁의 전선도 더욱 광범위해질 수 있다.

코로나19만큼 짙은 불확실성이 우리를 덮치고 있다. 한가하게 정권 지키겠다고 네 편 내 편 갈라져 남 탓 공방이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정권을 지키고 싶다면 우리 국민에게도 실리를 쥐어 줘라.

sue6870@

설경진의
투머속살



자본시장부 차장

1944년 6월 6일. 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은 나치독일 치하의 프랑스를 해방하고자 7개 사단의 병력을 동원했다. 어린 애도 안다는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펼친다. 그런데 노르망디에 상륙하기에 앞서 연합군은 셰르부르를 먼저 공격한다. 그런데 이것은 적의 관심을 분산하기 위한 기만전술이었다. 독일군은 연합군의 기만전술에 속아 군의 진영을 변경했으며 연합군은 그 결과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작전’이라는 말은 웅대한 전쟁영화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한다. 파이프 담배를 문 맥아더 장군의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지기도 한다. 9·11테러 주범인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한 ‘넵툰 스피어(Operation Neptune Spear)’라는 참수 작전, 2011년 1월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피랍된 삼호주얼리호 선원 구출 작전인 ‘아덴만 여명작전’이 있다. ‘작전’이라는 제목의 영화가 국내에서 상영되기도 했고, 최근에는 ‘화양연화’ ‘위험한 약속’ 등 TV 드라마에서도 단골 소재로 쓰인다.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영화와는 다른 ‘작전’의 현실

들어본 단어가 ‘작전’이다. 영화 속 얘기처럼 좋은 의미보다는 나쁜 의미로 쓰인다. 흔히 시세 차익을 노리는 세력이 투자자들을 현혹하고 주가를 띄운 후 돈은 챙긴 후 유유히 사라지는 행위를 말한다. 기업사냥꾼들도 작전세력이다. 대개 체력이 허약해진 기업을 노리지만 때로는 정상적인 기업까지 노린다. 2006년 칼 아이칸은 KT&G의 주식을 다량 매입, 2대 주주로 올라섰다. 국내 은행들과 국민연금공단이 주식을 끌어모아 대응하면서 간신히 KT&G의 경영권을 사수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앞으로도 주식값이 주~욱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 사태 속에서도 몇 달간 주식시장이 놀라운 상승세를 보이자, 증시 주변에서는 이처럼 호기롭게 손님을 끄는 투자자문업자들이 부쩍 많아졌다고 한다. 굳이 이런 권유가 아니더라도 치솟는 주가지수 자체는 잠재적 투자자들에게 강력한 유혹이다. 증권사마다 “지금 주식을 사도 괜찮겠냐”는 문의가 빗발친다고 한다.

그동안 주가조작과의 전쟁 덕분에 ‘작전’은 많이 사라졌다. ‘상장회사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시행되면서 회계부정이

나 내부자의 불공정 행위도 줄었다.

전문가들은 최근 같은 주식시장을 ‘비이성적 과열(irrational exuberance)’로 본다. ‘꾼(작전세력)’들이 놀기 좋은 시장이다. 소위 ‘매뚜기’라 불리는 작전세력이다. 사채업자나 검은손들이 자금력을 앞세워 신주인수권부사채(BW)나 전환사채(CB)를 사들인 뒤 호재성 공시를 내고 주가를 띄워 1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치고 빠지는 식이다.

이들이 활개를 치는 데는 한탕주의를 노리는 ‘개미(개인투자자)’가 있기 때문이다. 작전 종목을 알아낸 다음에 거기에 살짝 발만 담가서 돈만 챙기고 빠져나오는 걸 흔히 ‘쪼지포’라고 한다. 하지만 영화나 드라마처럼 작전이 아주 손쉽게 착착 잘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작전이 성공할 확률은 거의 없고, 운이 좋게 성공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감시 시스템에 걸려 조사받고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뒤늦게 과욕을 탓하거나 금융당국을 원망해 봤자, 이미 버스는 지나간 뒤다. 먼저 투자자들이 자신을 되돌아보자. 참담한 투자 실패 뒤에는 한탕을 노린 과욕이 있지 않았던가?

skj78@

사설

뉴딜펀드 논란, 관제 펀드 실패 되풀이 안돼

정부가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해 민간의 투자 촉진 방안으로 내놓은 ‘정책형 뉴딜펀드’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투자자들의 원금 보장과 관련해 국민세금으로 손실을 메우는 정부 방침에 대한 시장의 문제제기와 ‘관제(官制) 펀드’의 실패 우려가 잇따른다. 여기에 재정·손실부담 비율을 놓고서도 정부의 입장에 혼선이 빚어졌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조성될 20조 원 규모의 뉴딜펀드 가운데 35%인 7조 원이 정부·산업은행·성장사다리펀드가 출자하는 모(母)펀드라고 밝혔다. 모펀드는 은행·연기금 등 민간이 매칭하는 나머지 13조 원의 자(子)펀드에 대한 후순위 출자자로서 자펀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우선 흡수하는 구조다. 하반기 경제부총리와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처음 35%까지의 펀드손실을 재정이 떠안고 수익률도 국고채보다 훨씬 높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자본시장 왜곡과 국민세금으로 펀드 손실을 보전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일자, 다시 정부의 손실부담 비율은 10% 수준을 기본으로 한다고 말을 바꿨다. 정부 재정에서 후순위는 2조 원이고, 나머지 5조 원은 중(中)순위, 또는 후순위로 유동적이라는 것이다. 투자자들의 가장 민감한 부분인 손실부담 비율에서 혼란을 불러왔다.

정부는 재정이 후순위로 위험부담을 안는 것은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스마트대한민국펀드(위험부담

률 10%), 구조조정 기업에 투자하는 기업구조혁신펀드(7.5%) 등의 전례가 있다고 설명한다. 민간 자금 유입을 위한 안전장치로 불가피한 정책수단이라는 것이다.

뉴딜펀드가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녹색펀드’나 ‘통일펀드’의 실패를 되풀이할 수도 있다는 시장의 우려도 많다. 정부 주도로 아심차게 시작한 펀드로 반짝 자금을 끌어모았으나 정권 임기가 끝나면서 자금이 대거 이탈하고 수익률도 형편없이 떨어지는 등 흐지부지됐다. 정부는 뉴딜펀드가 세계적 트렌드인 디지털과 그린의 신산업에 집중하고,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들이 구체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의 관제 펀드와 차별화된 강점이 많다고 주장한다. 정부 임기와 무관하게 사업의 성장성과 지속성이 높아 수익률 전망도 밝다는 얘기이지만 아직 희망사항이다.

뉴딜펀드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이 여전히 큰 이유다. 펀드의 성공을 좌우하는 건 결국 수익성이다. 돈은 사업의 미래 발전성의 기대를 쫓아 움직인다. 정부가 관제 펀드를 만들어 앞장서지 않아도 이익이 나는 쪽으로 돈은 몰리게 돼 있다. 한국판 뉴딜의 수많은 사업이 선택과 집중 차원의 범위에 대한 분명한 정리가 안돼 아직 불확실성이 크고, 장기 프로젝트로 손에 잡히지 않는 것도 많다. 민간 자금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려면, 우선 규제가 만연해 투자환경이 결핍된 상태에서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다.

■ 미리 보는 한 주

KDI 경제전망, 성장률 더 낮출까

이번 주에는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최근 경기 진단과, 특히 KDI가 내놓은 올해 경제성장률 수정 전망이 관심을 끈다. 또한 통계청과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고용 관련 지표를 공개해 코로나19 재확산 이후의 고용시장 동향을 엿볼 수 있다.

KDI와 기재부는 7일(월)과 11일(금) 각각 이달 경제동향 진단을 내놓는다. 두 기관 모두 지난달엔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이 축소되며 경기 부진이 다소 완화되고 있다”고 진단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달 중순부터 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지난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는 상황에서 이달 경기진단은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것이 분명하다. 특히 KDI는 8일(화) 성장률 수정치 등을 담은 경제전망을 발표하는데 하락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KDI는 5월 20일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을 0.2%로 내다 보면서,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활동이 내년이나 돼야 점진적으로 회복하는 상황을 가정한 ‘하위 시나리오’로 성장률이 -

1.6%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달 27일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성장률을 5월 전망치 -0.2%보다 1.1%p 낮춘 -1.3%로 내다봤다.

고용 관련 지표는 우선 7월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 지급 추이를 알 수 있는 ‘8월 고용행진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을 공개한다. 7월엔 구직급여 지급액이 2월 이후 6개월 연속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우며 1조1885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6% 급증한 것이다. 이어 9월(수)엔 통계청의 8월 고용동향이 나온다. 7월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27만7000명 줄어든 2710만6000명으로 3월 이후 5개월 연속 감소했다. 다만 감소폭은 4월 47만6000명을 정점으로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 고용률은 60.5%로 7월 기준 2011년(60.2%) 이후 9년만에 최저치였고, 실업률은 4.0%로 2000년 이후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고용시장 역시 지난달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개선을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정리=홍석동 여론독자부장 hong@

‘이투데이

뉴스를 풀어줍니다,
경제가 쉬워집니다.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KB금융그룹이 새로운 가족
푸르덴셜생명을 만나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금융 KB금융그룹에
140년 전통 푸르덴셜생명의 신뢰가 더해져
금융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합니다

KB금융의 푸르덴셜생명,
KB손해보험, KB생명보험이 함께
국민의 삶이 더욱 든든해지도록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KB 국민은행

KB 증권

KB 손해보험

KB 생명보험

푸르덴셜생명

KB 국민카드

KB 자산운용

KB 캐피탈

KB 부동산신탁

KB 저축은행

KB 인베스트먼트

KB 데이터시스템

KB 신용정보

KB 금융그룹